

〈Q〉와 만나는 세 가지 방법

E-mail 보내기

〈Q〉를 읽고 생각난 이야기, 느낌, 고민할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퀘스처닝의 밤

날짜 : 7월 9일(토) 저녁(예정)

내용 : 〈Q〉 낭독회, 퀘스처닝 풀아보기, 춤과 노래, 설치미술 등
참가하고 싶은 분은 이메일로
상임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웹자보와 메일을 통해
다시 연락드리려 합니다.

생태여행 · 도시락모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생태여행,
2학기에 진행될 도시락 모임에서
퀘스처닝의 생생한 얼굴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싸이월드로 참가신청 해주세요 ^^

퀘스처닝 매거진 〈Q〉 vol. 1

특집 〈공간〉

동거, 도시, 빈 곳

할말 있어요! : 파업

〈퀘스처닝〉

세미나, 프리마켓,
생태여행, 도시락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Questioning

club.cyworld.com/questioning
questioning@gmail.com

CONTENTS

02 특집 <공간>

- 통거 1. 엄마의 방 • 06
2. 외딴 방 • 10
도시 1. 동네 • 18
2. 청계천 산책 • 22
빈곳 1. 문화기술지 • 30
2. 공간과 이야기 • 34
3. 길 • 42

같이 걸을까 생태여행# • 45

46 할말 있어요! : 파업전야

50 <퀘스쳐닝>

- 여성주의세미나 후기 • 52
프리마켓 보고서 • 54

도시락 모임 • 63

64 후기



스츠의 글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별이 친구네 집에 놀러갔는데 그곳은 서울 바깥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었다. 친구네는 배를 키워 팔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나무가 많았다. 할아버지부터 살던 집이었고 친구는 고등학교 무렵까지 죽 그 곳에서 자랐다. 별은 어릴 적부터 아파트에 살았고 여러 번 이사를 했다. 그가 주택에 대한 로망을 말했더니 반대로 친구는 아파트에 대한 로망을 말했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정돈된 집, 서울의 변화가가 주는 활기 근처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인간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을 누일 공간이 필요하다. 과수원 근처 주택에서 사는 사람과 일산 베드타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근거하는 공간은 무척 다를 것이다. 여기서 공간이란 물리적인 실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을 파악하는 방식, 밤과 낮에 행동하는 패턴, 이에 유착해서 형성되는 자아나 로망을 포함한다.

데이비드 하비는 공간과 그곳 거주민의 인격은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고 썼다.¹⁾ 거의 모든 공간이 오염된 시대에는 거의 모든 인간 역시 더러울 뿐일까? 중고등학생은 교복에 몸을 조이고 대학생이 되면 공간에도 밥 먹을 곳 없어 굶는다. 집에 가면 일단 내 방문부터 닫는데 아주 잠깐 씩만 부엌에 가서 엄마가 채비해둔 반찬을 내어먹는다. 독립을 원하지만 통장장고를 되새길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면 혈압수치가 되고 신촌에 가면 영수증이 된다.

이 시대 많은 공간은 하나의 용도나 하나의 방식을 요구한다. 학칙과 규율일 수도 있고, 과장된 친밀함일 수도 있고, 가부장제에 복종해야 하거나, 3만원 정도 지불해야 할 때도 있다. 학교나 카페는 너무 단단해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일단 굶히고 들어간다. 어쨌거나 바깥은 춥고 쫓겨나면 달리 갈 곳도 없다. 공간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인식하고 연기하고 그 외의 부분은 포기하게 된다. 암전하게 교복과 스타킹을 챙겨 입거나, 마초나 호모포비아에 즐거운 척 하거나, 가격표대로 돈을 낸다. 공간에 발을 들인 인간은 말라가고 고립되고 가난해진다.

한편 가온은 어릴 적부터 아파트에 산 것을 김치의 원인으로 추측했다. 일직선으로 구획된 비슷비슷한 건물을 좌표로 삼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가온은 자주 길을 잃는다. 별의 경우는 좀 다르다. 고양이처럼 매번 다른 길을 경유해 목적지에 다다르곤 한다.

① 데이비드 하비, 『파리, 모더니티』, 김병화 옮김, 생각의 나무, 2010.

어린 시절에 별은 아파트에서 1시간 내에 오갈 수 있는 지점들을 상상하고 실제로 이어보는 것을 즐겼다고 했다. 스즈는 어린 시절 골목길을 쏘다녔던 이유를 동네친구의 존재에서 찾았다. 길 어딘가에 앉아있으면 몇몇의 또래들이 나타났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지름길을 연구하고 공터를 발굴하는 게 놀이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차이다. 하나의 공간을 하나의 방식으로만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다른 시야들. 개인적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일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었거나 여행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서 일 때도 있다. 우연에 우연이 겹쳐 어느 순간 인간은 메뉴얼을 꺼낼게 잊은 채 정신없이 춤을 추거나 아무 데로나 페달을 밟게 되기도 한다.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이 바뀌면 공간 역시 바뀐다. 학교 한 가운데서 도시락을 까먹는 경험은 반이나 동아리에 속하지 않고도 앉아있을 학생회(학생모임)를 만들지도 모른다. 서문 자취방에 모여 반찬을 만드는 경험은 편의점 삼각김밥을 줄이고 끼니를 쟁겨먹을 유학생 거주지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연남동이라고 해서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학생회관 3층을 떠나게 된 지금 우리에게 공통점이라곤 여기에 모였다는 사실만 남았다. 서로의 차이가 도드라졌다. 각자가 끌어온 공간들, 거기서 비롯한 매연과 먼지들이 여과 없이 통과되어 들어왔다. 중학교 도서관, 엄마의 방, 공동체 주거, 공원이나 신촌과 같은 어울리지 않는 공간들이 벽돌처럼 나란히 놓여서 연남동의 바닥이 되고 벽이 되었다.

아주 생소한 질문이 오갔다. 방 한 칸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가? 건물이 아니라 길에 머무를 수 있는가? 발화되지 않은 기억이나 저편을 어떻게 감촉할 수 있는가? 아이처럼 뒹굴고 뛰고, 몸을 바꾸어가며 여기 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대안적인 공간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지도를 쥐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사공간에서 한 발짝 떨어져는 순간을 포착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간에 대한 매체가 아

닌가? 오히려 애매모호하고 취약한 피난민의 위치, 공간의 외부 혹은 공간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상태 자체를 하나의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기존의 공간에 부여된 서사가 뒤를린다거나 말끔히 철거된 줄 알았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날 때 우리가 위치해있는 공간. 과거와 미래라는 일직선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단지 현재의 시간만으로 감촉할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곳은 존재하며, 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중도 앞에서 프리마켓을 열었을 때 나는 민주광장에 화단이 없었던 무렵을 상상했다.²⁰ 학생처에서는 퀘스처닝의 정체를 알 수 없어서 허가증은 써줄 수 없다고 했다. 슬픈 일이 있거나 정사가 났을 때 관리과를 통하지 않고도 빈소나 마당을 확보했던 시절, 이곳에는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었을까? 지난 주 프리마켓에서 누군가 폴라로이드 필름을 가져간 것으로 다음 주에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다. 그때라고 해서 갑자기 화단이 철거되고 학생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약속을 잊지 않는 한 중도 앞이 30분정도 아마추어 사진관이 될 뿐이다.

TV 위에 모과가 놓이던 순간을 기억한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에서 걸어 나와 거실로 모여들었다. 햇볕이 유순했고 누군가 침착을 끝이기 시작했다. 어제 도착한 CD를 함께 들었다. 차를 훌쩍훌쩍 마시며 오랜만에 모두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늦가을이라 모과가 익었고 친구는 발치에 떨어진 모과 한 알을 거실까지 운반했을 뿐이었다. 모과향이 만들어진 공간, 좁고 둥글고 한시적인 공간, 그 곳에서 시작된 대화와 잠시 확장하던 오후. 그 날 이후 종종 집을 나서기 전에 모과를 매만지곤 했다. 버스 안에서, 강의실에서 피로해질 때마다 손뼉을 코에 대고 쿵쿵거렸다. 때로는 형체가 없는 모임들이나 의도치 않은 발걸음이 공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이끌기도 했다. 모과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 모과를 옮겨올 수 있다는 것,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며 그때 생겨난 공간들이다.

● 4학년인 김씨는 자신이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중앙도서관 앞에서 파장연을 먹거나 맥주를 마셨던 일을 회고했다. 민주광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던 시절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은 왜 이곳의 이름이 '청량'이 아닌 '광장'인지가 궁금해지도록 울창한 모습이지만.

동거 1. 엄마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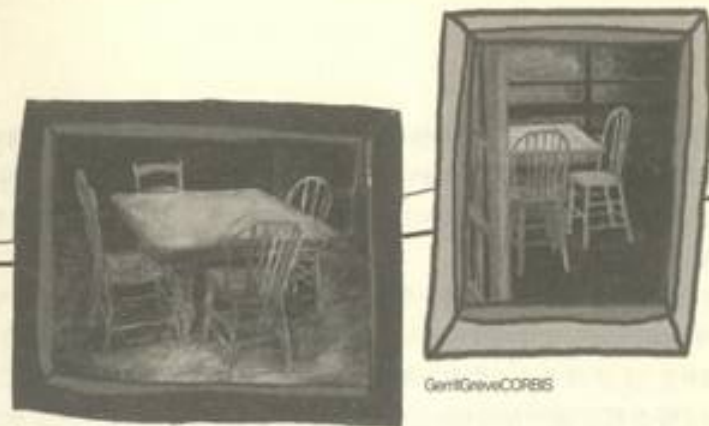
연대기적 서사

엄마의 방은 오랜 시간동안 없었다. 조부모-부모-7남매의 집에서 다섯 번째가 있을 공간은 밥 먹을 자리와 누울 자리 뿐이었다. 당신의 그 시간 유일한 목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다. 서울에만 가면 모로 누워 자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책과 책꽂이가 생기며, 자기 방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다섯 번째라는 지위는 이 목표의 강점이었다. 위 넷이 별면 학비와 한 달 중 막날 이틀은 굶어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다. (아래 둘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졸업 후 둘의 학비를 벌었다.) 당신은 매년 교단 앞에서 상장을 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엄마의 첫 번째 방은 청파동 언덕길 맨 꼭대기 방이었다. 한겨울 간신히 빌린 손수레에 이삿짐을 싣고 혼자 캄캄한 언덕을 올라갔던 기억은 나와 딱 한 번 공유된 적이 있다. 4년 동안 언덕 꼭대기-기숙사-연남동 럭키아파트나 하숙을 전전하다 졸업 후에는 큰 삼촌 집에서 빨래와 밥을 하며 회사에 다녔다. 집에서 생활비를 받던 대학생시절을 제외하고 결혼 전까지 자기만의 방을 가진 시간은 얼마 없던 셈이다.

결혼 뒤 엄마의 방은 항상 안방-아빠와 엄마로 불리는 보호자 두 명의 방-이었다. 자는 시간은 항상 공유하는 곳이었을 거다. 게다가 가끔 보지 말라는 귀곡상장 같은 걸 때쓰고 보다 무섭다고 기어들어오는 미성년 둘도 있었다. 안방은 거실에 준하는 가족 공공장소였다.

아빠라 불리는 보호자가 돈을 벌지 못하면서 엄마의 방은 점점 작업실이 되었다. 고학력-경력자였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초중등학생 둘을 키워내기 충분한 고소득을 올리려면 먹고 자는 시간 없이 일하는 날이 많아져야 했다.¹⁾ 나는 안방에 들어가 당신이 놀아줄 때까지 기웃거리다 나가라는 말이나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당신의 책을 읽고는 했다. (덕분에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었고 경미한 난독증 내지는 남독증이 생겼다.)



더 이상 보호자로 불리지 않는 아빠가 안방에서, 넓게는 우리집, 가족에서 물리적/정신적으로 추방된 이후 안방은 완전히 엄마의 방이 되었다. 엄마는 잠들 때까지 침대에서 책을 읽고 플랫 동호회의 포스터나 카페에서 찍은 당신의 사진 등이 방에 들어왔다.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웬지모를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었고 자식들은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다.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밖에 나가는 직장을 새로 잡았고 엄마의 방은 아무도 없는 시간이 늘어났다. 매달 주택대금이자를 내는 집은 비어있을 때가 많았다. 이자를 벌기 위해(교육이 더 많은 수입을 주는 직장을 위한 발판이라면) 모두 집을 나갔다.

비교역사연구

책상 아래 발을 넣는 구멍에 꼬그리고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이 조그마했을 때, 나는 책상 밑에다 이것저것 영어가사를 적어놓거나 명구를 적어놓거나, 사진을 붙여놓거나 했다. 심분의 일을 채우기도 전에 그 일이 자겨워졌고 책상 밑을 내 공간으로 만들거면 고개가 너무 아팠다.

신경숙은 자기만의 책상에 대한 욕구를 말한 적이 있다. 자기 물건을 모두 내 놓고 아무도 쓰지 못하고 자신만 쓸 수 있는 책상. 나는 누구도 읽지 못하고 나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원

① 어느날인가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죽은 듯이 지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엄마가 죽었을때봐 무서워서 재웠을 때 엄마는 시름일을 못 잊으니 간식은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먹으라고 했다.

했다. 일기장은 언제라도 가족 구성원이 볼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책상 밑이었는데, 그나마도 엄마는 청소하다 여기다가 뭘 깨알같이 써 놔라며 내게 물었다. 나는 우물쭈물했다.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좋아했던 게 그런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가족 가운데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언어였으니까.

나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책상과 내 옷장이 있는 내 방이 있었다. 대학 입학 뒤에도 그 방에서 꼭 잔다. (가끔 다른데서 자고 오기도 한다.) 독립의 욕구는 전 세대처럼 '내 방'의 요구가 아닌 '나만의 방'을 갖고 싶다는 요구로 변화했다. 밤늦게 친구를 불러들일 수 있는 공간, 눈치 안보고 글씨와 일기장을 꽃아놓을 수 있는 공간. 애인과 동거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상상하는 그 방. 이 상상은 타진 보일라나 쌓이는 먼지와 설거지같은 그림은 배제된 상상엔 불과하다. 적어도 매달 4~50만원의 돈을 온전히 방에만 쏟거나 지불하기 불가능한 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이용할 수 있는 욕망이기도 하다. 괜찮은(당신의 표현대로라면 디센트, decent)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서 나는 비교대상만큼의 돈을 벌 자신이 없다. 비교대상보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르게 많이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다.

비교는 동시대의 지방 학생들과도 이루어진다. 자취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로 보이지만 지방에서 대학을 위해 상경한 사람들은 필수다. 아니 사실 지방사람이나 서울사람이나 선택의 여지는 없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봐야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시험점수를 받기 쉬워진다. 돈이 없으면 독립을 못하고 난방과 물과 식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써 놓기가 지루할 정도로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방은 여전히 차갑고 하숙집 아주머니는 주말에 밥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에 몸을 밀어넣는다. 생활이 당연해졌을까봐 무서워서 글을 쓴다.

공 간 空 間

집에서 엄마와 나의 공간은 어느정도 겹쳐져 있다. 당신이 참지 못할 지경이 되면 내 방은 깨끗이 치워진다. 책을 읽다 주무시면 내가 당신의 방 불을 끈다. 아무 때나 서로의 방에 들어가 읽고 싶은 책이 보이면 집어 읽는다. 그러나 다들 밖에 있어 밥을 먹는 사람이 없게 되자 부

엿의 냉장고 안은 점점 넓어져 빈 곳이 많아졌다. 일주일에 한두번 저녁식사시간 전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을 때가 많다. 나는 중고등학교 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마가 부재한 빈집의 체험을 이제와서 하고 있다. 개수대에는 엄마가 점심 때 먹은 흔적이 밥그릇 하나로 남아 있다.

서울에서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장소는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 재개발로 인해 벽이 무너진 폐허에서 텐트를 쳐도 소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소유했다고 믿었던 장소에서조차 쫓겨나는 상황에서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내몰린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위대열에 있다 유치장으로 끌려간 기억이 있다. 조사 전에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연락했지만 조사는 점점 길어졌고 나는 엄마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해야 했다. 그 안에서 나는 속해 있는 집단과 배후가 누구냐는 추궁을 받았고 엄마는 아는 변호사와 전화했다. 집에 왔을 때 (가족을 버릴 만한) 신념이 없다면 괜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줄래줄래 따라다니다 네 인생 망치지 말라고 한 뒤 엄마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그 때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진다. 집을 떠난 시간만큼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헤어지면 이내 잊었다. 긴 시간 동안 마주침은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 장소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차라리 찬바람 부는 밖으로 나간다. 나는 당신과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가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이라는 도시?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는 대학? 가족? 불확실한 미래?

미래에 대한 거라면, 엄마는 마침내 혼자만의 집을 갖게 될 거다. 최근에 사글가서 텃밭을 꾸미며 살까, 라는 말은 나에게 몇 번 했다. 자식들이 언제 독립할지 모르니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방을 꿈꾸던 사람의 미래는...대충 그렇다. 엄마의 방은 텃밭까지 넓어질지도 모른다. 나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공동체를 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셋방을 전전하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쪽방에서 잠들 수도 있다. 모르는 일이다.

by 이백가 출근할 때 포포스 엄마가 안아줘도 포포스

동거 2.

외판 방

새벽에 너는 꼭 유령 같다. 얼굴은 새파랗고 온 몸엔 미동도 없다. 동거를 시작한 것은 8월 29일이었다. 6개월 동안 너는 착실히 살이 빠졌다. 늙은 타조같이 팔다리가 얇아졌다. 집 앞 골목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가끔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정도만 남겨놓고 몸을 모두 떨어낼 작정인 것 같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싹껏 자고 오후엔 우리 소풍을 가요."¹⁾ 다시 눈을 감았다 뗏을 땀 앞방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출발한 뒤였다.

눈물샘이 없어진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엄마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에도 이혼하길 잘했다는 고모네, 작은 아버지네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선심 쓰듯 내 몫의 방을 하나 내어주었다. 넣어주는 밥과 반찬을 집어먹으며 몇 달을 혼자 웅크리고 지냈다. 방문 너머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 울리는 소리, 주전자 소리, 이웃집 다툼의 소리, 개와 고양이가 번갈아 우는 소리. 새들은 새벽이나 저녁 무렵에만 나타났다. "삐익- 삐익-" 그 방에서 나는 휘파람 부는 법을 터득했다. 그 이후로는 남의 일에만 올랐다.

동 거 란 무 엇 보 다 하 나 의 공 간 과 두 개 의 물 에
관 한 이 아 기 이 다 .

1. 동거가 몸에 끼친 영향은 자명했다. 방은 쉽게 콘크리트를 둘러친 섬이나 면으로 바닷물을 댈 고치가 되었다. 일상적인 접촉,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부비고 뒹구는 일,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패턴이나 포즈의 변화였다. 기상시간은 처음 눈 뜨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난 뒤로 늦춰졌다. 취침시간은 내가 눈을 뜰 때까지 누워있는 시간, 내가 눈뜨고 나서 누워있는 시간까지 연장했다. 책상이 아닌 곳에서 책을 읽게 되었다. 모로 누워 자게 되었다. 몸의 무게중심이 머리 속에서 바깥으로 이동했다. 이유도 없이 재울려졌다.

자기계발서가 칭찬하는 똑똑한 인간이 되려면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데도 없으면 된다. 하루라는 시간을 분단위로 절단하여 임의적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경영할 것.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 하루에 끼어드는 인간이나 노을이나 우연 따위를 차단하면 된다. 그동안 혼자 떠나는 여행이 갈급했던 것은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마음과 비슷한 거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외부에 깊숙이 속하려는 욕망에 다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곳에 가면 다른 내가 된

1) 김형숙, <앞에 대하여>, 『10월의 농민』, 문학과 지성사, 2007

다거나, 내가 달라지면 여길 볼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들.

지금 나의 외부는 두 평 남짓한 방이고 나는 매일 매일 새로운 표정이나 말투를 익히고 있다. 함께 출발한 노새가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며칠씩 쉬고 느리게 가다보니 넉 달째 순례길에 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²⁾ 노새의 여행이 아니라 노새의 속도로 걸어간 사람의 여행. 너의 시간이 아니라 너와 만난 나의 시간.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생겨난 지금의 몸이 나에겐 좀 더 현실감 있는 자아이다.

그리고 몸을 볼 때, 거리에 서거나 카페에 앉아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 같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각도에서 본다는 것, 보여진다는 것, 클로즈업과 비슷한 시야나 체온과 가까운 온도로 만진다는 것, 만져진다는 것. 이정도 거리에서는 원근법이 적용될 수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일랑 애초에 짐을 짓. 턱 아래쪽에서 올려다 본 얼굴과 코를 맞대고 바라본 얼굴과 가슴팍에 묻어둔 얼굴에서는 비슷한 점을 찾기가 어렵다. 여자라고 하기엔 단단하고, 남자라고 하기엔 물렁하다. 아주 생경한 시각, 촉각, 후각의 돌기가 돌아난다. "너를 볼 수 없을 때까지 가까이, 파도를 덮는 파도처럼 부서지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무슨 사이입니까?"³⁾ 알 수가 없다. 너의 몸에 대해서, 나의 몸에 대해서. 확실하고 익숙했던 감각들의 행복 선언. 동거하는 방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2. 동거가 공간에도 영향을 줄까? 집은 사랑에게 기댈 공간을 마련해준다. 둘의 사진을 걸아놓는 벽이 생긴다. 함께 키우는 식물이 생긴다. 내가 썼던 물건과 내가 가져온 물건이 나란히 놓인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만나게 된 물건들. 그렇게 방으로 들어온 물건은 쉽게 나가지 않는다. 애착이 깊은 물건을 망가졌다고 버리기도 어렵고, 필요 없다고 남 주기도 그렇다. 많은 물건이 쓸모와 상관없이 아랫목에 놓치고 앉아있다. 누군가 짐을 싸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물건은 단 두 사람에게만 저고, 쓰여지고, 바라봐진다.

방으로 들어올 때 물건의 모습은 한차례 변한다. 물건은 본래의 용도를 상실함으로써 두 번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우표수집가는 우표를 스크랩북에 모아둔다. 이때 우표는 비닐 안으로 고정되어 콜렉션이 된다. 수집가는 자신이 우표를 발견한 날짜, 우표를 구매한 장소, 우표를 통해 떠올리는 이미지를 근거로 우표들을 재배열한다. 콜렉션에서 우표는 구체적인 시간, 장소, 이미지를 표상하는 새로운 위치에 놓인다.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가게에 내

놓을 수도 없게 됨으로써 비로소 찬란한 아우라를 뽐내 된다.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외에 생소한 가치들이 덧붙여진다. 종이와 천 마리아 주위는 조개껍데기 따위가 종종 사랑의 증거로 전달되는 이유와 비슷하다. 슬데없이될 때 비로소 방 한가운데 놓일 가장 정당한 이유가 생긴다는 역설. 이 방에 놓인 물건들은 거의가 한 숨 죽어있다. 쇼윈도를 지날 때 가방이나 시계에서 느껴지는 텅텅한 활기. 이 방에는 그런 활기가 어울리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밀란 쿤데라는 한번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장에서 토마스가, 뱃속이 편지 않을 때 나는 꾸르륵 소리에 테레사가 태어났다고 썼다. 둘이 함께 살 때와 헤어질 때 몸은 결정적이었다. 낭만적인 순간에 꾸르륵 소리를 내는 테레사, 그녀를 사랑함에도 여러 명의 섹스파트너를 오가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토마스. 몸은 사랑의 감동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연인이 떠나간 날에도 배고픔을 느낄 때, 사랑으로도 통솔할 수 없는 자신의 일부에 직면하게 된다. 잘 해주고 싶다는 의도와는 달리 습관적으로 먼저 뒤돌아설 때, 사랑으로도 변하지 않는 지나온 시간들에 직면하게 된다. 각각 다른 몸을 입고 살아온 날들, 거기서 생겨나는 낯설음과 오해들, 몸과 몸으로 접촉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연인의 시간성과 거기서 비롯하는 타자성을 본다.

이 때 드라마나 영화가 주로 써먹는 방책은 낭만적 로맨스다. 하늘이 정해주신 천생애필이 어디엔가 있으며 서로를 운명적으로 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들. 이때의 사랑이란 무엇보다 합일을 지향한다.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서 나는 모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하여 상대방의 현재와 미래 역시 내가 알 수 있고 지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결의. 신데렐라 스토리에서 왕자와 신데렐라는 계급감동이나 젠더감동을 겪지 않는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아무런 어둠감 없이 일직선상의 시공간으로 나란히 입장한다. 20년간 먼지를 뒤집어쓰고 살아온 가난한 여자라 할지라도 왕자가 사랑하면 단 하루 만에 왕비가 될 수 있다. 낭만적 로맨스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타자성을 소거할 수 있다는 주장에 가깝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면 두 번 실패하게 된다. 처음에는 운명이 아니라서 실패한다. 토마스와 테레사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6번의 우연이 필요했다. 돌아가는 기차를 아슬아슬하게 놓쳤다가, 할 일없는 가운데 하필 그 술집으로 들어갔다거나, 하고많은 벤치 가운데 희한하게 그 벤치에 앉았다거나 하는 일들. 따지고 보면 모든 일은 평범하게 일어났다. 둘이 사랑하게 되면서, 아무 음악이나 숫자들이 강력한 운명의 징표로 등갑한 것뿐이다. 연인들은 먼저 몸으로 부딪치고 나중에 의미를 부여한다. 비록 만났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진실일지언정 우리는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꺼안았다고 말한다.

다음엔 시간이 지나서 실패한다. 낭만적 로맨스의 동력은 사랑이 아닌 다른 데서 발생한다. 처음에는 상대가 떠날까봐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상대가 익숙해져서 떠날 수 없어진다. 20대

● 서경숙, 『제주 길기 여행』, 북하우스, 2008
● 김형숙, 『모음』, 『타인의 의의』, 민음사, 2010

에는 밀고 당기기로 연애를 유지하다가 50대가 되면 정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는 모습, 연애 초에 띄워진다는 공작지는 상대방의 과상함조차 매력으로 무마함으로써 사랑을 증명한다. 오고야만한다는 권태기는 상대방을 속속들이 파악했다는 지루함에서 연애의 종말을 예고한다. 알고 싶다는 욕망으로 시작된 감정이 너무 잘 알게 되(었다고 믿으)면 지리멸렬하게 사그라든다는 아이러니. 이 사이에 연인의 타자성은 존중되질 못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없는 척 한다. 이런 서사는 사랑을 무력하게 만든다. 어떤 연인도 시간을 거슬러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토마스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존재의 가벼움을 인정"하는 일은 아니었을까? 사랑이란 결국 얇은 환상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일. 누구도 연인의 진짜 모습을 알 수는 없으며, 결국 모두는 사랑이라는 환상을 통해 부풀려지거나 축소된 모습으로만 연인을 바라보고 만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 게다가 이 모든 일은 운명이 아니라 우연에 의존한다는 깨달음.

동거가 연인에게 유리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동거는 근거 없는 약속에서 시작된다. 여기 허풍한 이불 속으로 두 개의 몸이 매일같이 기어 들어오리라는 약속. 토마스와 테레사가 다시 만날 때 몸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사람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프라하로 떠나간 테레사. 그녀를 찾아서 프라하로 돌아온 토마스. 바로 그 시각 그 공간에서 교차하게 된 두 몸과 두 몸의 포옹. 같이 잠들고 같이 깨어날 때까지 나의 몸 전체를 너에게 드러낸다.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코를 고는 너의 몸까지 껴안을 준비를 하고 만났다. 하루하루 더 낯설고 알 수 없어 절지라도 밤이 오면 어김없이 곁에서 잠들기로 한다.

동거는 연인들이 오로지 서로에게 충실함으로써 유지되는 공간이다. 오늘과 같이 내일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이곳에 나타나 주리라는 믿음. 연인들은 우연에서 비롯한 일조차 방기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사랑의 지도로 꿰어간다. 그 자체로는 망설임하고 별 의미도 없는 사건들을 이리저리 배열해서 하나의 공간을 구축해나간다. 알록달록 조잡하게 이어 붙인 방 안을 보며 둘은 예쁘다 맞아 그댄 그랬었지 하고 감탄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란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①

동거하고 놀고 먹고 그렇게 살 순 없을 까?

이 시대는 동거에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 동사무소에는 혼인신고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건물주에겐 보증금과 월세를 이체해야 하고 부동산에는 복비까지 챙겨줘야 한다. 이성애주의는 두 개의 성별을 요구하고 가부장주의는 가사노동 착취를 요구하고 자본주의는 재테크를 요구한다. 기러기 아빠나 강남 엄마는 가족이라는 관념(집안을 먹여 살리는 가장, 자식을 챙겨주는 엄마)이 극대화될 때 동거가 파괴되는 기현상을 상징한다. 같이 있기 위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아이러니. 이 사회는 사랑을 담보로 너무 많은 패약을 부린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느끼는 안녕감은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진다는 거리감과 비슷할 것이다. 주민등록증 없이도 잠을 잘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밥을 차려준다. 생의 교환이 계량화, 수치화되는 수고로움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 시장과 국가에 최소한도로 비굴해질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안도감을 준다.

저장하게 말하면 체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데 소용되는 나의 생을 최소화한다는 것.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폭력을 이어간다는 증명일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군대와 혁명군과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총을 겨눌 때, 마이클 k는 폐허가 된 농장에 숨어들어 호박을 키워냈다.^② 모든 것을 돈으로 지불하라는 자본의 명령에 맞서, 임옥희는 일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투쟁을 제안했다.^③ 옆에 자는 사람의 손끝 발끝을 덮혀 주는 일이 내 몸뚱이의 유일한 용도가 되는 삶. 바깥 세상에는 일할 기여하지 않은 채 좁은 방 안에서 회회대 대기에도 모자란 24시간들. 사랑은 인간을 더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불러들인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것. 내가 타조가 되었다면 나는 양초가 되었다. 내 내 누워 있다가 걸맞으면 온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잠에 들지도 못한다. 작은 불에도 주르르 녹아버리다 불꽃이 꺼지면 순식간에 존재감이 없어지는 양초. 일생동안 사람에게 허락된 몸이 단 하나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땀이나 매미처럼,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람 역시 허물을 벗고 다른 몸으로 갈아입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몸은 지난여름에 이 방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양초가 되어 타조와 사는 낮과 밤. 몸을 눕히고 굴리고 부비다가 들게 되는 새소리. 그렇게 살아온 6개월과 알 수 없는 미래와 방으로 돌아갈 오늘 저녁. 외판 방에서 찾은 이 작은 행복이 나는 아주 마음에 든다.

by 백악-백악-파니

① 알란 콘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재홍 옮김, 민음사, 1999, 63쪽

② 존 스타인, 『마이클 K』, 황은철 옮김, 돌베개, 2004

③ 임옥희, 『재식주이자 범피이어』, 도서출판 여이엔, 2010, 48쪽

도시 1.

우리 동네

1. 과거 - 우리 동네

어렸을 적 우리(나와 나의 친구들)들은 동네 이곳저곳에서 말뼉을 일으키는 개구쟁이였다. 우리들은 담과 담의 사이를 가로질러 다녔고, 골목과 골목, 건물과 건물 사이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우리들은 이 담 뒤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담벼락을 넘어야 가장 빨리 술래로부터 도망 갈 수 있는지를 알았고, 동네의 구석구석과 우리들만의 비밀통로와 아지트를 그려놓은 마법의 지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전신줄 위의 참새들처럼 재잘거리며 무리를 지었고, 고양이처럼 날래게 구석구석을 돌아다녔고, 강아지처럼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는 '우리 동네'였다.

우리들은 항상 지름길을 찾아냈다. 이런 길들은 대부분 어느 집 대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집과 어떤 집의 담벼락을 넘어서 건물 틈새로 가면 누구네 집이 나온다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길보다는 그런 지름길들을 애용했다. 우리의 아지트는 이런 지름길 찾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는데, 문밖 구 옆을 지나서 나오는 중국집을 끼고 돌아서 중국집과 그 뒤쪽에 있는 건물 사이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었다. 밖에서 보면 어린 아이 하나가 겨우 들 어 갈 수 있을 것 같은 길이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어린 아이서넛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간혹 술래잡기를 할 때나 엄마에게 혼아서 집에 들

어갈 수 없을 때에 그곳은 유용하게 쓰였다.

'우리 동네'는 무궁무진한 우리의 놀이터였다. 그곳은 정해진 길 이외에도 다른 비밀통로와 비밀장소들이 펼쳐져 있는 호그와트의 성과 같은 곳이었다. 우리는 공을 가지고 있으면 양쪽에서 술래가 공을 던지고 공을 맞으면 술래가 되는 피구와 비슷한 놀이를 할 수도 있었고, 막대기가 있으면 왕과 기사가 있는 전쟁놀이를 할 수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다면 술래잡기를 할 수도 있었다. 가끔은 놀이터에 가서 놀이기구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할 수도 있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우리 동네'의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을 향한다는 것을 뜻했다. 골목을 몇 개를 지나서 4차선 대로를 건너면 나타나는 남의 동네, 빨간 벽돌과 흰 색 페인트로 이루어진 건물들과 늘어선 담벼락 그 사이로 펼쳐진 길. 그 길들 사이에는 언제나 새로운 장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는 것은 흥미진진하고 스릴이 넘치는 일이었다. 비슷한 건물들이 이뤄내는 낯선 풍경, 낯선 장소 속에서의 해매는 것은 어린 우리들에게 현실감 있는 모험이었다.

한 번은 우리가 '모험'하던 도중에 해가 진적이 있었다. 어떤 날이었던가, 왜 그때까지 그곳에 있었는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① 아마도 정신없이 돌아다니다보니 그리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해가 지기 전에 각각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해야 했기에, 해가 지는 것은, 그것도 우리 동네의 바깥에서 해가 지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 가야 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의 모험을 통해서 그곳의 길에 익숙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그곳은 '우리 동네'가 아니라 남의 동네였다. 동화 속에서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숲이 밤이 되면 무서운 요괴나 무들로 뒤덮인 미궁의 숲이 되는 것처럼, 모험을 즐기던 그곳에서 어둠 속 어디선가 갑자기 무언가가 뛰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 동네'의 골목과 담벼락들이 나타날 때까지 뛰었다.

① 사실 실제로 그런 하루의 사건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길을 잃은 것은 같은 느낌만큼은 강하게 남아있다. 아마 어렸을 적의 비슷한 느낌의 여러 기억들이 서로 얹어서 하나의 기억으로 뭉뚱그려진 것 같다.

2. 현재 - 서울

나에게 서울은 하나의 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서울을 무수히 많은 스팟(spot)들로 이해하고 있다. 스팟들은 지점들이다. 하나의 지역이나 구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점이 스팟이다. 포토스팟이 사진을 찍는 지점인 것처럼, 스팟들에는 그곳을 가야 할 목적이 존재한다. 거창한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목적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는 지점이 스팟이다. 뽀빠스는 과외를 가기 위해서 남산에 갔었지만, 그 아파트까지가 스팟이다. 뽀빠스는 과외를 가기 위해서 남산에 갔었지만, 그 아파트까지가 스팟이다. 뽀빠스는 과외를 가기 위해서 남산에 갔었지만, 그 아파트까지가 스팟이다. 뽀빠스는 과외를 가기 위해서 남산에 갔었지만, 그 아파트까지가 스팟이다.

그래서 나는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에 따라서 배치된 스팟들을 하나로 묶어낸 기묘한 형태의 모습을 그려낸다. 내 머릿속의 서울은 여러 개의 형질이 기워진 냄파조각과 같다. 홍대와 신촌은 2호선이라는 초록색 실로 연결되어 있다. 용산과 학교는 750A(혹은 B)라는 파란색 실로 연결되어 있다. 학교와 금천구청은 초록색(2호선) 실과 파란색(1호선) 실로 연결되어 있다. 이 실은 신촌역에서 신도림으로 향하는 도중에 합정역을 거친다. 하지만 이 실은 합정역이라는 지하철역은 지나갈지언정 서교동이라는 지역을 지나지는 않는다. 난 시청 옆에 존재하는 청계천을 따라가면 동대문 운동장이 나

온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심지어 명동의 건너편은 남대문이 있었다.

혹은 서울은 어디나 섬들로 이뤄진 군도(群島) 같다. 각 섬에는 이름과 그에 맞는 목적들이 붙어있다. 그 섬들 사이로는 해류(海流)가 흐르는데, 이 해류는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른다. 해류를 따라서 해로(海路)가 그려지고 이를 따라서 사람들이 흘러간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카페에 가고 이를 따라서 사람들이 흘러간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영화관에 가고, 술집에 가야 하고, 음식점에 가야 한다. 놀기 위해서는 노래방이나, 노래방, PC방, 보드게임카페 등에 가야 한다. 조모임/스터디/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곳을 또 다시 찾아야 한다. 이 섬들은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곳을 또 다시 찾아야 한다. 이 섬들은 무언가를 판매한다. 하지만 그곳들에서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커피와 술과 음식과 같은 상품이거나, 게임과 노래, 모임을 위한 편의와 같은 서비스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섬들에서 판매하는 것은 공간이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공간, 그 목적에 따라서 그곳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사용권,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난 그곳에 잠시 거주할 수 있다. 서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은 그뿐이다.

그렇기에 서울을 스팟들의 집합으로 느끼는 것은 단지 익숙함이나 익숙하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다. 스팟들의 모음이라는 점에서는 학교 앞 신촌 명물거리도 인사동 데이트코스과 마찬가지로 다. 신촌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야 할 스팟들만이 촘촘히 떠 있다. 너무 촘촘해서 서로가 서로에 맞닿을 정도로, 매일 매일을 수많은 술집과 카페와 음식점, 노래방 등의 공간들 속을 전전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곳들은 어느 한 곳도 '우리 동네'가 아니다. 그곳에는 우리들의 아지트도, 비밀통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우리 동네'란 존재하지 않는다.

3. 현재 - 우리 동네

어느 날 밤, 언제나처럼 우리는 갈 곳이 없었다. 둘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있었지만, 딱히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들고, 그곳의 언저리를 뒹굴 뿐이었다. 생각나는 곳이라고는 그 근처에 있었던 PC방과 몇 번 기본적으로 있는 술집 하나뿐이었다. 친구의 시험 준비로 오랜만에 만난 우리들은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우리의 지갑은 알았다.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비용-편의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PC방에 가면 술지도 않고, 비교적 적은 돈으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곳은 담배냄새가 자욱할뿐더러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술집에 간다면 조금 시끄럽기는하겠지만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안주와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몇 장 안 되는 지폐로 다음 주까지는 버텨야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어차피 늦은 밤이었고, 당장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었다. 둘의 집은 멀지 않았고, 금세 또 다시 만날 기회는 생길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몇 대의 택시들이 지나갔고, 술에 취한 사람들을 뺄어내고는, 비었다는 의미의 빨간 불을 켜 채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고 있던 사람들도 손에 쥐고 있던 음료수를 전부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 몇 마디의 대화를 조금 더 나누다가, 다음을 기약하며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하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 어두웠고, 늦은 밤이었기에 집 앞까지 빠르게 뛰었다.

by 스즈

도시는 이미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심지어 도시 바깥 지역마저도 도시적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것처럼 도시란 사람들의 흐름,

노동력의 흐름, 상품의 흐름, 대중의 흐름, 교통의 흐름을

계산하고 통제하는 형식이고, 그런 흐름이 집중되고 분산되는 양상에 따라

삶을 상품화하는 하나의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인지도 모른다.

<근대도시의 형성과 그 원천>, <도대니티의 지중들>, p260

북집 (공간)

시점등



도시 2. 청계천 산책 : 〈징후와 세기〉¹⁾에 가깝게

아파트 6층에서 죽은 귀신은 제삿날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것일까? 술 먹은 날이면 더욱 열심히 계단으로 귀가했다. 죽고 난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몸이 없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앙도서관에서 죽은 귀신에게는 학생증을 빌려줘야 하는 걸까? 120년 전 이곳은 신촌이 아니라 새터말이었고 논밭이었다. 초가가 철거되고 중앙도서관이 세워지던 첫 날, 귀신은 어디서 젓밥을 먹었을까? 2006년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저마다 그렇게 허기가 졌다. 귀가 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샌드위치를 우겨넣고는 배가 터질 것 같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1) 이영자 옮김, 위리새터론, 〈징후와 세기 (Syndromes and a Century)〉, 2006

1. 청 계 천

그런데 서울에도 유령이 있을까?

내가 경험한 서울은 신촌, 광화문, 청계천 등지였다. 신촌은 언제나 스무 살만 존재하는 도시, 밤이면 더욱 휘황한 얼굴들이 떠다니는 도시. 광화문은 새벽마다 새까만 찢달미들을 뺨아내는 개찰구, 밤이면 구두 한 짝 뺏아내고 꽃아내는 빌딩가. "새벽에는 토사물을 머금고 허리 굽힌 사람들이 휩쓸었던 대지의 역사를 날이 밝기가 무섭게 도로 말끔히 단장한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밟고 지나가는 신기한 도시"라, 서울은 채 머물지 않은 자리였다 10층짜리 콘크리트를 쿵쿵 박아 세우곤 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꼭 얼굴에 난 여드름을 뜯어 내리는 여자애같이 아슬아슬해 보였다.

이러한 서울을 누구보다 평화롭게 상징해낸 사람은 이명박이다. 피복노동자가 있던 곳, 녹록한 작업장이 있던 곳, 절망하지 않으려했던 정직한 젊은이가 몸을 화한 곳. 2004년 풍물시장으로 옮겨났다가 2007년 한양공고길로 옮겨났다가 2009년 철거 트랙 앞에 누워 "악이라 도 먹고 죽고 싶다"고 되뇌던 할머니가 장난감을 팔던 곳. 2011년에 이르러 청계천은 미성소리와 화염자국을 말끔히 박피해냈다. 대리석같이 환하게 웃으며 서울시민들의 주말을 기다리고 있다. 부패하는 것도 새어나가는 것도 없이 유유히 흐르는 일직선의 하천. 죽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서울은 가장 자연스럽다.

청계천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근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도의 중심에 물이 흐르게 하고 점차 좁아지도록 한다. 그 옆에 사람들을 걷게 하고 점차 작아지도록 한다. 그 위에 빌딩을 세우고 점차 낮아지도록 한다. 나와 가까운 공간은 커다랗게 그리고 나와 먼 공간은 조그맣게 그린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줄어들다가 마침내 소실점 너머로 사라지게 만든다. 미술시간에 배운 동경화, 공사장에 그려진 조감도, daum 로드뷰에 이르기까지 원근법은 인간이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태도로 군림한다. 원근법은 그 자체로 과학이며 미학이다. 그러므로 지구인들은 "마음을 찢으면서 멀어지는 고향을 우주적인 고독 속에서 경험하지 않고도, 먼 곳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나 동경 같은 것 없이도, 시퍼런 무의식의 심연에 한 쪽 신

2) 친구 1
3) 또 꽃겨우는 노정상 옮김, MB오세훈 '익숙'은 어디로, 민중의소리, 2009-10-07
4) 김형수, '가로수 원근법의 끝에서', 시간, 11권 4호 (제42권) 2008.12

발을 떨어뜨려보지 않고도"④ 원근법적 풍경을 그릴 수 있다.

서울시가 내놓는 청사진은 군더더기 없는 원근법의 전형이다. 어떤 공간을 없애고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 상가와 마을들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고공 도시(하이high 서울)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간을 구획하고 위계제를 필요가 생긴다.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불러들이고 노점상을 내친다. 4대강을 불러들이고 남한강을 내친다. 로봇물고기를 풀어놓고 다슬기를 죽인다. 미래와 가까울수록 거대해지고, 과거와 가까울수록 조그마해진다. 뒤떨어진 시간축으로 부리는 장난질. 과거-현재-미래를 일직선으로 만들고, 그 직선에 따라 공간을 분할한다. 부산보다 10년 앞서있는 서울! G20정상회담 개최로 21세기에 당도한 서울! 분할한 공간 중에 미래만 남겨두고 과거는 삭제한다. 타워벨리스를 설치하라! 포이동 판자촌을 철거하라! 양재천 사이로 근접한 두 공간이지만 전자는 2000년대 강남풍의 결과로, 후자는 1970년대 개발독재의 결과로 분류된다. 2000년대는 세금혜택의 비호 아래 활개치지만, 1970년대는 토지변상금의 수인이 되어 철거위험에 떨고 있다. 두 개의 공간이 2011년이라는 시간축, 강남이라는 공간축에서 탈구되어 순식간에 서울시 원근법 안으로 재배치된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하나는 웅장하고 하나는 스러진다.

그래서 서울에선 그렇게들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일까?

서울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제스처나 한숨과는 별개로 움직인다. 가난과 질병의 냄새에 되레 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하이엔나, 부동산이나 지력과 같은 무기물까지 첩첩 집어삼키는 가오나시. 서울의 미래에 속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 가까운 것을 취하고 멀어진 것들을 떨쳐내야 한다. 노점상, 남한강, 다슬기 따위에 미련을 쏟고 있다면 덩달아 소실점 너머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DDP, 4대강, 새 건물과 새 도로에 악착같이 들러붙어야 한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끼에 왔으면 커피를 사야하고, 학교에 왔으면 입 닥치고 수업만 들어야 한다. 소비하고, 개발하고, 방관해야 한다.

서울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주의 그물망에 한발 담근 채 산다는 뜻이다. 첫째로 내가 이동한다.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강북 사람들은 강남으로, 강남 사람들은 뉴욕으로 이주 하길 바란/한다. 더 나은 곳으로 가면 더 나은 자신이 될 거라는 기대. 이주는 내일에 대한 투자나 성공에 대한 증거로 간주된다. 서울은 이주를 부추겨서 돈을 번다. 그렇다면 내가 멈춰있을 때는? 서울이 이동한다. 남일당이 있던 용산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용산을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용산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한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난개발의 결과로 탄생하는 새로운 풍경에서는 철거지구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이주는 살고 있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행된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작정한 삶.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때로 나이도, 고향도 없는 것 같다.

몸이 놓인 공간이 순식간에 뒤바뀔 때, 하나의 몸은 죽어버리고 다른 몸이 태어나는 건 아닐까?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몸은 항상 여러 개의 형상을 만들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별은 이사라는 경험은 기억을 분절시키는 일이라 말했다.⑤ 수잔 브라이슨은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경험을 트라우마의 예로 들었다.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필사적이 되어야 한다. 낯선 공간에 들어서고 낯선 시야와 낯선 동선을 체득해야 한다. SSM에서는 시장에서 하던 대로 상인과의 눈맞춤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ATM에서는 은행창구에서 하던 대로 직원에게 꾸벅 인사할 필요가 없다. 이주하고 나서, 나는 이전에 만들었던 자아를 잊어야 한다. 이주하고 나서, 나는 과거보다는 미래만을 바라봐야 한다. 과거를 애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사라지는 풍경들, 친구와 타임캡슐을 물어두었던 언덕이 배어지고 연인의 이름을 새겨두었던 등나무가 꺾여나갈 때, 무력한 사람은 그 시절의 애정까지 함께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기 위해 웃고 떠드는 와중에 지난날을 잊지 못하는 몸들은 혹시 하품이나 한숨 따위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까? 새 털보다 가볍게 날아다니다 예전 살던 집, 다니던 학교, 자주 가던 슈퍼의 문짝이나 풍선껌 같은 곳에 빙의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물성을 잃은 상태로 존재하는 기억들을 유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은 유명으로 가득할 것이다. 언제나 공사 중인 도시, 세월의 흔적을 멸종하려는 도시, 이주민들의 도시, 유명-도시.

2. 산 책

영화 <정후와 세기>를 본 날, 나는 우연찮게도 부산에 있었다.(부산은 내가 스무 살까지 자

④ 별, <영무조계 네트워크> 어름호

⑤ 수잔 브라이슨, '이미기'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 : 성폭력의 기억은 제대로 잊혀지지 않아, 여성주의 번역모임 '고든' 옮김, 인형, 2003

란 곳이다.) 그 날 나는 모교 근처에 갔다. 졸업하고 처음이었으니 9년 만에 갔던 거였다. 이 후에 일어난 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했다.⁷⁾

버스에서 가끔 마주치던 아이의 이름이 생각났고 한쪽 눈에만 유독 진하던 쌍꺼풀이 그려졌다. 우산을 던지고 귀가하는 길에 허벅지를 휘감던 젖은 체육복의 감촉이 느껴졌다. 책상과 의자 사이로 둘러 읽던 만화책의 제목이 떠올랐다. 국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학교가 돈도 인력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홀홀 단신으로 도서관을 만들던 선생님이었다. 나와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기 위해 방과 후에 도서관에 남아서 책장을 옮기거나 책에 핀 먼지를 닦거나 했다. 시큰둥한 중당들 앞에서도 꽃무늬스카프를 두르고 좋아하는 소설을 몇테 이지고 낭독하던 소녀같은 사람이었다. 공지영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 곧이어 선생님이 암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났다. 3년 전 서울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다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때는 조금 놀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날은 견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없었다고 여겼던 감정들이 또렷하게 살아났다. 잊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나는 그저 모교에 갔을 뿐이었고, 예쁘지 않았는데도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나는 무방비상태가 되어 공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웃었고 울었다. 벨이 얘기했던 대로 마치 타임머신에 올라탄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나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 날은 2011년이었을까, 3년 전이었을까, 중학교를 다니던 2002년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2011년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 그 순간 나는 중학생이었을까, 대학생이었을까? 서울에 있었을까, 부산에 있었을까? 그 날 나는 누구였던 것일까?

어떤 공간을 어린애처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징후와 세기>는 환한 하늘과 초목에서 시작해 빌딩숲과 공원으로 끝난다. 전반부는 농촌에서, 후반부는 도시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짐작과는 달리 이 영화는 농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흘러가는 순차적인 시간축을 따르지 않으며 인물의 태어남, 사랑함, 죽음을 좇아가는 인과

⑦ 읽고 쓰기 소모임에서 읽었던 책이 이 글의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 그 일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경험이었다. 현실에서는 일초나 일과 일과 하는 정말 일순간의 시간일 뿐인데, 회귀해 온 기억에는 시간적인 두께가 있어서 복수의 이따위-다른 시간, 다른 장소의 시간-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그 사건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도, 나 자신의 감각으로서는 내가 예전에 그것을 체험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시간 한가운데 놓여 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나는 불행없이 카이로 거리의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고, 햇볕에 달구어진 인지가 된 대기의 냄새를 느꼈으며, 물의 차가움을 느꼈던 것이다. (오기 머리, 『기억/서사, 소용돌이, 2004, 46쪽』)

적인 서사를 좇지도 않는다. 영화가 하는 일이라곤 두 개의 공간을 병렬해놓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한 약사가 군의관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보는 장면. 농촌 병원에서 관객은 약사의 얼굴만을 볼 수 있다. 그는 짙은 군복을 입고 있다. 면접관은 목소리만 들린다. 면접관이 묻는다. “원 하나가 있다면 무슨 색일 것 같으세요?” 약사는 눈을 꿈뻑이며 답한다. “투명한 색이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질문이 들린다. 내내 약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답한다. 면접관이 묻는다. “DDT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세요?” 약사가 대답한다. “Deep Down To you.”

같은 상황이 도시 병원에서 일어난다. 관객은 면접관의 얼굴부터 본다. 그는 선량한 눈빛으로 약사를 보고 있다. 약사는 목소리만 들린다. 면접관이 묻는다. “원을 뭘로 만드시겠어요?” 약사가 답한다. “유리로요.”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 이제 카메라는 약사도 비춘다. 그는 하얀색 의사복을 입고 있다. 긴장해서 턱이 굳어있다. 면접관이 묻는다. “DDT가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약사가 대답한다. “Destroy Dirty Thing.” 같은 얼굴의 배우가 두 개의 공간에 출연한다. 비슷한 대화가 두 개의 공간에서 반복된다.

영화가 아니었다면 짙은 군복을 낀 것으로, 흰색 의사복을 새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혹은 “Deep Down To you”를 순진한 시골뜨기의 추측으로, “Destroy Dirty Thing”을 시니컬한 도시인의 농담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 묻고 답하고 악의 없는 호기심이 오갈 때, 그런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인간의 대화와 감정을 역시 낀 것-새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일까? DDT가 흙뿌려진 현대사의 상처가 군복을 걸친 병사들로, 팔다리가 잘린 환자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몇 번이고 벌진 맨살을 드러낼 때, 어디가 더 전쟁과 가깝다거나 어디는 전쟁에서 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두 개의 공간을 손쉽게 과거나 미래 중의 하나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일까?

원근법으로 공간을 그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고부동한 주체이다. 무엇이 가까이에 있고 무엇이 멀리에 있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흑과 백처럼 강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 나이 들의 결과로 성장하고, 성실함의 결과로 성공이 매당될까라 믿으며 오지 않은 날만을 바라보는 주체. 누구보다 건박하고 애달픈 일상에 매달린 사람, 유령이 아닌 산-사람. 그러나 영화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물어본다.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해서 나무는 점이 될 때까지 작아지고 길은 어느덧 사라지는가.” 상영관에 불



<징후와 세기 (Syndromes and a Century)>



<징후와 세기 (Syndromes and a Century)>

것을 행위자/관찰자, 능동/수동, 주체/객체, 주는 자와 받는 자, 배우/관객을 오가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아이는 무엇보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단단한 관념이 없다. 아직 걸음마가 서둘러 넘어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걷게 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변칙 들어올려지거나 눕혀지기도 한다. 기어다닐 때, 뛰어다닐 때, 들어올려졌을 때 달라지는 눈높이와 속도에 따라 아이의 공간은 극적으로 변한다. 가까웠던 것이 멀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있는 것을 올려다보기도 한다. 기존에 공간에 부여된 가치판단이나 사용가치 모두가 뒤죽박죽 된다. “주인처럼 원근법적 공간을 관찰하는 존재로 설정된 ‘나’는 사실상 그 공간을 늘 흔들어놓는 자이며 그곳에서 햇빛에도 바람에도 흔들리는 불안한 눈동자이며 코이며 피부이다.”

<징후와 세기>를 보고 나는 어린애가 된 기분이었다. 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공간에서 비슷하게/다르게 일어난다. 한 공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른 공간에서 이어진다. 한 공간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다른 공간에서는 새의 눈으로 본다.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놓인 두 공간을 동시에 바라보는 관객. 이곳에서 관객은 약사의 긴장하는 얼굴만으로는 읽을 수 없었던 면점관의 호의적인 미소를 본다. 자 곳에서 관객은 제국과 식민지의 흔적이 곳곳에 숨죽여 울고 있는 것을 본다. 짙은 옷을 촌스럽다고만 보고 흰색 옷을 전문가 같다고만 볼 수는 없다. 온통 혼란스럽지만 눈낼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 세상이다.

영화에서 세 개의 공간은 시간축인 동시에 서사가 된다. 나란히 서있는 두 개의 공간과 그

이 커지고 나서도 관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다. 영화의 잔상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잠시 영화 바깥의 세계가 생경해 보인다. 그러니까 ‘나의’ 눈동자는 실험실의 전제처럼 마지 못이라도 되는 양 고정될 수 있겠는가.⁸⁷

어린애는 날뛰고 구르면서 공간을 체험한다. 임옥희는 이

결과로 생겨난 텅 빈 공간, 영화가 보여주는 두 개의 공간과 관객이 찾아낸 세 번째 공간. 이 세 번째 공간에 이르러 속색-흰색, 농촌-도시, 과거-미래라는 일직선의 시간축이나 서사는 맥을 못 추고 흐물흐물해진다. 하나의 장소나 하나의 시간에 붙박혀 있을 때는 생겨날 수 없었던 틈새 같은 공간이 환하게 열린다. 중학교 근처에서 밀려온 기억들은 영화가 원근법이라는 안경을 고리로 휘감아 던져버린 덕분에 목격할 수 있었던 황홀한 찰나였다.

많은 경우 이런 순간은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찾아온다. 눈물이 시야를 부엌에 흐릴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좇아 고개를 옆이나 뒤로 돌렸을 때 문득 발견하게 되는 낯선 풍경들. 이때 내가 위치하게 되는 공간과 거기에서 몰려드는 기억과 사랑이라는 유령들. 원근법은 모든 지나간 것들을 영영 소실점 너머로 지워버린다. 세상에 쏟아 부은 애정을 회수할 틈을 주지 않는다. 영화에서 두 공간을 이어주는 고리는 환생이었다. 가수는 스님의 얼굴에서 동생을 본다. 동생은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지만 가수의 슬픔은 이제껏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새로 녹음한 CD를 스님에게 전한다. CD에는 사랑노래가 담겨있다. 가수는 스님에게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때 장난친 것 미안했다고 말한다. 죽음이 없애지 못한 마음, 과거로 이어지는 미래. 원근법에서 한 발짝 물러설 때 비로소 우리는 맘껏 그리워하거나 맘껏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곳 저곳에서 사랑했던 사람의 유령과 마주치고 유령이 된 그이와 울면서 인사할 때, 그에게 쏟아 부었던 자신의 생을 증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유령이 준비한 곳은 사실 생의 에너지가 폭죽처럼 터지는 발전소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1월 9일에 돌아가셨다. 내내 누워만 계셨던 양반이 옛집으로 돌아온 자식들 앞에 벌벌 일어나서는 편지와 농담을 고루 나눠준 지 꼭 일주일 만이었다. 제사상에서는 술을 세 번에 나누어 따라준다. 어릴 때는 귀신을 약 올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영정 앞에 술을 따르면서 반대라는 것을 알았다. 유령이라도 술잔을 들려면 손을 내밀어야 했고, 그러온 사람은 세 번에 나누어 할머니의 손가락을 붙들고 싶을 뿐이었다.

신촌에 살던 때 나는 걸산들렸던 건지도 모른다. 신촌이라는 때론 이름에 병병해진 새터 말 농부의 유령, 중도 3층을 올려다보는 목이 긴 고학생의 유령. 이것을 전작 알았다면 청크 푸드 대신 사과나 배 같이 정결한 과일을 챙겨먹었을 텐데, <징후와 세기>를 상영하기엔 신촌 거라는 스크린으로 쓸 만한 빈 벽도, 내은사인을 가릴만한 어둠도 없었다. 바닥에 널린 유령들에게 코를 바짝 붙여서 인사하는 환상. 신촌이 조금만 덜 뻥뻥하거나 조금만 덜 환했더라면 나는 그때 창문을 열어둔 채로도 아이처럼 잠들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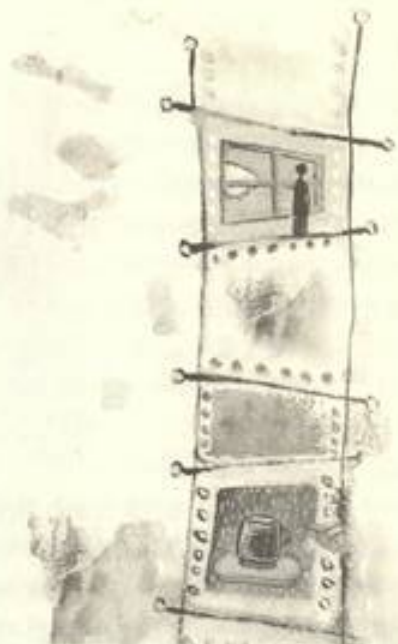
by zzz. 파니

87 김형숙의 글.

88 임옥희, “기억과 반기억의 틈새에서 몸으로 생각하기”, 2002-01-22, golemist.org

빈곳 1.

어떤 나라의 문화기술지 : 정신의학을 중심으로



K국은 동쪽에 있었다. 언제나 변화가 빨라 스스로 '역동성'을 국시로 삼는 국가였다. 사람들은 늘상 피곤했다. 피곤한 나라의 사람들은 늘상 어딘가 아팠고 아픔은 꼭 몸에만 멈춰있지 않았다. 오히려 탈은 마음에 더 깊이, 더 일찍 찾아왔다. 그러나 K국의 전통적인 관념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란 '치유'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안고 가야 할 짐에 가까웠다. 그들의 언어에 오래 전부터 '분노로 인한 육체의 질병'(Hwatbyong)이나,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과 애증의 덩어리'(Han)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의외의 일이었다.

특히나 K국의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는 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깊이 상처를 입고 등을 돌리더라도 그 사건은 '사라지면 좋지만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삶의 일부로 사람들의 입에서 다투어졌고 수용되었다. 모두가 어느 정도의 아픔은 안고 있었지만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입 밖으로 내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통을 부여 받지 못한 아픔은 그저 가끔씩 사건의 형태로만 떠올랐다. 다만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못한 바람들을 이야기꾼의 입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 나라의 명절이 찾아오면 이야기꾼들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 중 최소한 하나는 가족의 화해를 다루는 이야기여야만 했다.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만족했다.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다가 가끔 이야기를 통해 위로 받는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풍조가 퍼지기 시작했다. 치료사를 자칭하며 나타난 한 무리의 사람들은 K국 사람들이 꿈꿨던 꺼내려 하지 않았던 아픔들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

것은 무슨무슨 질환 입니까! 이것은 이런저런 병이군요! 당신은 아파사는 안됩니다. 당신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나는 지금까지 원래 있던 아픔을 이들이 찾아내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치료사들의 말이 미친 영향은 거의 '발명'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줄도 모르고 있던 병들을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찾아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주고받은 상처들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일찍 배운 아이들이 먼저 부모들을 비난했다. 더러는 반발도 했지만 아이들은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었고 부모들이 한 일이 거짓은 아니었으니 그들은 다시 그들의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를 변명처럼 올려주는 수밖에 없었다. 끝에는 대개 변명처럼 '내가 무식해서 그랬지'라는 말이 붙었다. 치료사들은 흉터를 해집어 고통을 꺼내는 일들을 장려했다. 그들의 말은 현재는 물론 과거까지도 상처에 대한 기억으로 바꾸어놓았다. 부모와 자식은 같이 울었다. 치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기획해 내었다. 이윽고 치료사의 언어는 사회문제 전반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새로이 출현한 치료사들의 '치유' 담론이 K국 사람들의 정신에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K국의 학생 A와 몇 번에 걸쳐 심층면접을 가졌다. K국에서 학생은 힘이 없었다. 치료사들이 찾아낸 상처들의 많은 경우는 아이를 학생으로 만들려는 부모의 욕심에서 생겼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기묘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학생들을 구슬리기 위해 고전을 말하고 정의를 말했다. 치료사들의 언어는 이미 대중적이 되어있었기에,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는 학생들을 치료사의 언어로 위로해보기도 했다. 그 언어 속에서 K국의 학생들이 받는 고통은 개인적인 '치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그들은 치료사들의 권를 따라 '청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아픔을 개발해내면서도 말썽을 피하기 위해 은근슬쩍 전통적인 화법을 빌려와 그것은 삶에 으레 따라붙는 고통이라 말하기를 즐겼다. 그러나 이미 학생들은 치료사들에게 있어 제일가는 손님이었다. 그들의 상처를 두고 치료사들은 주로 마우라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마음에 박힌 기억의 칼날'이라는 뜻이었다. 치료사들은 마우라트를 뽑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놓고 있었다.

A는 결국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 나라의 통과의례로 간주되는 2년간의 감금과 학대를 거친 후의 일이었다. 치료사들은 마음의 고통을 입 밖으로 내는 일이 마음의 칼날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A는 그 칼날을 뽑아내기 위해 온갖 유파의 치료사들을 찾아 다녔다. 어떤 치료사는 몸을 쓰게 하고 어떤 치료사는 소리를 지르게 하였다. 나는 A를 따라 한 치료사의 치료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치료사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급히 비밀스러워야 할 치료의 공간에 환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적잖은 거부감을 보였다. 잘 정리된, 두개의 의자와 책상이 전부인 치료실 안에서 치료사는 외과수술만큼이나 정교하고 관례화된 방식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은 얼핏 보기에 개인적이지만, 실은 잘 정리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오늘의

기분과 같이 대답하기 쉬운 작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점점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하더니 이윽고 그의 과거로 파고들어가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과거를 일일이 파헤쳐내기 시작했다. 있는 줄도 몰랐던 상처들이 치료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많은 고백과 토로와 눈물과 격정이 오고 갔다.

치료사는 A가 하는 모든 말에 깊은 동정과 공감의 표정을 지었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치료사는 부모에 대한 기억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들은 부모가 주는 마우라트가 수적으로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더욱 깊게 박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이 많았고,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치료사들이 등장하기 전에도 부모로부터 상처는 '모두가 가지고 있되,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종류의 기억이었다. 그러나 치료사는 그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의 사소한 사건까지 꺼내어 그의 고통의 근원은 부모가 어린 아이였던 A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의례화된 동정을 받았다. 그러나 내게 그는 오히려 그 동정들을 건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치료사들의 확신에 찬 답변 역시 A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다. 자신의 고통이 그들의 말에 의해 규정되는 기분을 느꼈다는 것이다. A는 자신의 가슴에 박힌 칼날의 아픔만큼 긍정했다. 때로는 그 칼날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이 느껴질 정도였다. 상처 입은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한 날에는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다만 그것이 A가 치료사들의 답변에 갈수록 적어지는, 아니면 실제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 서민지에 대해서는, A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정작 몇 번의 치유 끝에 치료사로부터 상처를 어느 정도 뽑아내었다는 판단을 받자, A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기분이라 말했다. 상처가 사라지자 의욕도 사라졌다. 하고 싶은 말도 스스로를 움직일 동인도 사라졌지만 정작 그를 둘러싼 세상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는 여전히 힘없는 학생이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들과 자신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학생에서 무엇 하나 특별하지 않은 학생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젠 무엇 하나 예전 같지 않다. 난 예전처럼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고 그저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남들보다 훨씬 어

색한 사람이 되었을 뿐이다. 치료사들은 나를 보고 나아졌다. 훨씬 다른 사람들과 같아졌다 말하지만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난 여전히 멀쩡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다. 마음껏 달라지고 분리될 수 있었던 예전이 차라리 낫다." A의 말이다.

A는 무엇보다 더 이상 어디까지가 진짜 아픈이고 어디까지가 치료사들의 말에 의해 만들어진 아픔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참에 깊은 좌절을 느꼈다. A가 원래 겪고 있었던 고통에 덧붙여져, 인식하기 전엔 의식하지 못했던 지점들마저 일단 치료사들에 의해 상처로 명명되자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다. 나는 실제로 A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우라트로 괴로워하는 사례들을 보았다. 그 아픔에 거짓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아픔을 담담하게 안고 살던 과거의 사람들과 과거의 A는 과연 무엇이었던 말인가? 그 아픔을 잃은 후에도 무기력과 어색함을 호소할 뿐인 A에게, 마우라트는 과연 제거해야만 하는 칼날일 뿐이었을까?

A는 자신의 아픔을 규정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떠안고 있는 수많은 나쁜 기억들이 마우라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 했다. 치료사들은 그가 증상을 호소할 때마다 그의 기억에서 불쾌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어 마우라트라 이름 붙였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판단을 신뢰도 불신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것을 빼내는 의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조각들을 끄집어내어도 그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스스로가 정말 아픈지도 알 수 없이 질 뿐이었으니 말이다. 이제 그가 느끼는 아픔에 아픔이라는 이름을 붙일 능력을 가진 존재는 치료사들 밖에 없었고, 스스로를 지탱하던 칼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빠져 못한 칼날들로 괴로워하던 그는 이제 자신의 아픔에 대해 화산할 수조차 없었다. 그는 내가 짐을 싸는 동안에도 울고만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은, 치료사들에 의해 실제로 '치유'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A의 경험이 너무나도 상충된다는 점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빨리 변화해가는 K국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힘들어했고 치료사들의 동정은 그런 사람들의 정서적 욕구에 부합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A처럼 치료사들의 행동이, 어느새 사람들의 고통을 정형화시키고, 어떤 이상적인 정서적 상태를 규정하고 모든 사람들의 정서를 그 틀에 맞추려 한다는 점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A는 차라리 아파도 좋으니 자신의 상처와 정서를 스스로 규정하고 싶어했다.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 속에서 나는 치료사들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K국의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갈수록 스스로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 통제를 잘 훈련된 전문가들에게 위임하고, 모든 문제를 이런 개인적인 통제의 문제로 돌리는 세계적 풍조와 비교해도 좋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y 위드



빈곳 2.

공간과 이야기

1. 걷는 다

걷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지형지물들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것들의 세부사항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내부와 주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다. 낯선 길보다 익숙한 길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도 주위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자기 내부에서 걷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물들, 동식물의 몸, 건축물들, 땅과 벽 같은 덩어리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나 두려움을 품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그걸 적당히 잊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포함한 덩어리들 사이의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물, 꿀, 밀가루반죽, 시멘트 속에서 각각 움직일 때의 차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나에겐 걷는 행동과 그에 알맞은 감각들이 낯설어지고 서툴어질 때가 많다. 잠을 많이 자다보니 주로 누워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누워있을수록, 눈을 감고 꿈을 꿀수록, 더 이상은 공간이라는 덩어리를 해집어놓으면서 돌아다닐 수 없는



호박벌

상태로 나 자신이 변성하는 것 같기도 하다. 꿈속을 배회하는 것에 비하면 꿈밖의 세계에서 느끼는 저항이란 빗방울 속에 갇힌 개미 같은. 지금처럼 걷는 속도가 느려지다 보면 언젠가는 호박 속의 벌처럼 시공간 안의 어느 지점에 갇혀 버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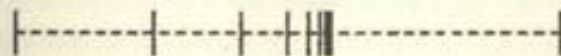
그렇게 나는 아주 천천히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백양로를 낙타의 속도로, 아니 거북이의 속도로 기어갈 때 나는 그냥 거북이가 아니라 아킬레우스와 경주하는 거북이가 된다. 무한히 많은 지점을 통과하느라 쫓쫓 때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무빙워크에 올라탄 것처럼 확 휩 스쳐지나간다. 그래서 되도록 정문을 안 통과하려고 오르락내리락 샛길로, 계단으로 다니는 요령을 익혔다. 그러면 덜 티 나니까.

가설. 이 세상은 여러 개의 연극무대나 영화의 씬 들을 겹쳐놓은 것 같은 구조이고 겹쳐진 그 사이들은 살짝 더 두꺼운데 나는 그 폴찰한 자국 위로만 볼들리도록 되어 있는 걸까. 얼굴 표정은 풍부하지만 유독 움직이지 않는 눈썹이나 코 같은 얼굴의 부분처럼, 세계에도 위화를 일으키는 구석들이 있는데, 매일 다른 길로 집에 가도 어차피 그중 하나를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서 출발했지만 글을 쓰다 보니 저절로 만들어진 허구의 공간론이고 공간각이다. 이처럼 공간과 이야기들이 만난다면?)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2. 이야기 한다

언어는 소리재이다. 평소에는 혀와 입술, 성대를 물리적으로 통과하며 생기는 목소리라는 껍질 혹은 기호의 껍질을 집으로 삼는다. 만약 쓰지도 말하지도 않고 침묵한다면? 언어는 밖으로 기어 나온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몸, 주위의 사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달라붙어서 새로운 집으로 삼고 거기 머무른다. 언어는 평소엔 기관과 기호에 붙어서 구체적이고 일회적인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지르고 건너뛸 수 있었다. 그것은 모든 높낮이, 움푹 패거나 튀어나온 부분들이 제거된 편평하고 인공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이용했다. 뉴스앵커의 목소리, 42개국 베스트셀러의 지면, 트위터의 타임라인에서 언어는 산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처럼 일련의 사건, 감정, 생각을 원래의 자리에서 떼어내서 배치하고 향유했다. 침묵함으로서 그 껍질을 벗기고 차단하면, 언어는 덩어리 공간에 뒤섞이게 된다. 이 언어를 공유하고 참여하려면 나 역시 동일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언어가 머물 수 있는 집으로 변신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언어의 내용과 양과 질은 완전히 변하고 애초에 전달하려던 목적이나 의도조차 상실한다.



소리재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라는 건 최초의 입과 귀로부터 신체의 다른 부분들, 신체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들, 서로 다른 몸들이 만나는 조건들로 점차 확장되는 과정으로 존재한다. 앞에서부터 뒤로 가기까지 어떻게 될지 예측불가능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명확히 나누어지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이고 일회적인 이 과정을 지남으로서 전달되고 이해되는, 각각의 과정에 대응되면서 드러나는 기이하고 독특한 현실감 자체가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총체적인 하나의 체험으로서만 비로소 이어진다. 마치 하나의 씨앗이 어떤 새의 몸속의 경로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발아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치이다. 그랬을 때 그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통로들은 씨앗에게 어떤 느낌이었겠는가.

씨앗이 서서히 자기 껍질을 벌려 세계라는 새로운 공간 속으로 씨를 내밀 듯이, 이야기하는 행위는 자기 내부를 열어서 공간에 개방한다.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의 토대이자 전쟁터를 공간 전체로 상징하고 여기에서 자신을 이식한다. 이것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위험한 행위이다. 나와 타자의 명백했던 경계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그러진다. 대개가 고통과 우울, 자기파괴욕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 감정과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변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3. ' ', " " 의 사용법

나는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정치의 기반을 두고 있는 특정한 공간 혹은 공동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하고 있다. 내가 경험한 이러한 공간에서는 설 새 없이 끊임없이 온 몸으로 이야기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언어를 검토하고 정제하고 단련해야 했다. 가부장제, 이성에 주의, 비장애중심주의, 산업개발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등의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그것들의 '모순'과 '균열'을 가장 잘 폭로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래야 하며 그럴 것이라는 신뢰와 동의가 공간의 전제이자 핵심이었다. 이 공간에서 만듦은 어느 날 하나 허투루 '타자화'하거나 '배제'하지 않고자 했음으로.

글 하나를 공식적으로 내보내려면 대여섯 명이 모여 대여섯 번의 '글검토'를 거쳤다. 단어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우리의 정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탐구했다. 한편의 자료집을 완성하기 위하여 열다섯 명의 사람이 그 이상의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글검토하고 마감했다. 한번 글검토에 대여섯 시간 씩 걸렸는데 말이다. 일상의 언어표현들도 심사숙고했다. 관개 맺는 순간순간의 부딪침과 차이를 계속해서 말로 '풀고' 더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할 것을, 더 나아가 당신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 기억하고 의미화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자발적으로 뒤흔들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andrea_p_mermaid

그리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작업이었고 계속 실패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했던 욕망이고 실현되었던 욕망이었음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 공간에서 '여성주의적'인 방식, 가능성, 힘은 각종 '규범'들과 '경계'들을 가로지르며 모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삶과 경험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 언어화하고 발화 하는데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언가를 전달하고 함께 만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기에 대해 이해하고, '재구성'하고, 정말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말하기, 이야기하기와 깊이 결부되어 있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원하는 건 그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다. 이 공간의 조건과 전제, 사람들이 그곳에 부여하는 의미들, 그곳을 둘러싼 소문들, 그곳을 떠난 이들과 새롭게 찾아든 이들까지. 있지만 없다고 여겨지거나 없다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모두를 포괄하여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충분치 않으니까. 그곳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다. 그들은 이런 말들을 완성하고자 했다. 라는 설명으로도 안 된다.

단순히 누군가 직접적으로 한 말 자체를 녹음하거나 속기해서 가져다 보여준다고 해서 가



andrea_p_mermid

능한 것이 아니다. 발화된 말 자체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고 말의 의미는 발화된 순간 말 바깥의, 말 이외의 것들과 이어져서 생겨나므로, 발화는 늘 온전하지 않았고 불안정했다. 세상에서 벌어진 하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에 도달해서 여러 번 되풀이되면서 여러 개의 버전들을 만들어냈고 각각의 버전 사이에 벌어져있는 간극과 시차 사이에서 이야기는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거울과 거울사이의 빛처럼 무수한 상들을 반사해냈다. 게다가 그 이야기들은 다시 여러 차례 베껴 써지고 인용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의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재발 말을 좀 그만하고 싶어 했다. 말을 하려 할수록 막히고 버벅대고 졸리고 도저히 말로 번역할 수 없는 느낌들이 넘쳐났다. 말의 '잉여'들이 공간 여기저기에서 출몰했다. 어제 내가 했던 말이 오늘 너의 눈빛이 되고, 오늘 누군가 던진 말은 오래오래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 동안 말은 말을 부르고 말이 터져 나오게 하는 강력한 원심력이 생긴다. 무언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데에서 이탈해서 허나 목소리의 의지로 말을 이어나가는 순간들이 끼어들었다. 말들이 수십 수백 개의 갈래로 찢겨져 나갈 때 나는 겨우 한 가지의 대답을 하면서 간신히 깜박깜박 지리며 앉아있었다.

대화는 시간을 스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계속된다. 둘러앉아있는 사람들의 여러 개의 목소리들은 각자 고유하고, 각자가 입을 때는 순간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대화, 이야기 속에서 이것들은 마치 오선지 위에 공존하는 대위 성부들처럼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 대화는 대위 성부들 간의 벌어진 사이, 빈 공간들의 총합이었다. 그래서 대화는 어느 하나의 목소리나 어느 한 순간에 고정될 수 없고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전개될 뿐이다. 시간과 기억이 너무도 중형 무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의 순간에 하나의 목소리만을 가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고, 그 한계와 대면하고 벗어나보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모놀로그가 아닌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진실에는 피와 살, 땀과 눈물이 배어있다. 여럿이 이야기할 때에는 각자가 취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목소리들의 막 아래에 그것을 찢고 나오려고 하는 괴물들이 우글거린다. 모든 이야기가 너무도 오래 진행되었고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의 시간동안 사람들이 모르는 몸이, 생이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백양로를 지나시는 학생여러분'의 발밑에 꿈틀거리는 괴물들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4. 해 가 볼 지 않는 곳에서도 시간은 흐른다.

나는 올해 초에 3개월간 일일 12시간의 주말알바를 했다. 일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며칠 때까지 퀘스처닝 사람들을 붙잡고 주구장창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고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이고, 다음날이면 또 바꾸고 그랬다. 그 공간은 이래라고 설명했다가도 아니지, 아니지 하면서 다음날이면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계속 그랬다. 이런 번덕과 혼란은 낯선 공간감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 같다. 어쩌면 그 공간이 나를 규정하고 이용하려는 것을 못 견디겠으니까, 또 거꾸로 그걸 이용해보려고 하거나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야기가 필요했을까. 나는 일주일 중에 나머지 5일과는 너무나 다른 이틀간의 균열을 어떻게든 일주일 7일의 서사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다하다 지쳐서 3월 마지막 날부로 그만두었다.

그곳은 네팔인 사장과 한국인인 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네팔에서 이주한 외국인노동자들과 한국인 알바생들이 일하는 인도, 네팔, 티벳 레스토랑이었다. 그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 네팔어가 팜퐁되어 있었고 모두가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어는 없었다. 일하는 사람들의 성별정체성과 나이, 계급과 인종은 뒤섞여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활기찬 걸음걸이라든지, 환하고 둥근 얼굴이라든지 하는 특징을 따서 지은 네팔어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곳은 반지하이고 창문이 없어서 햇빛이나 날씨는 무관한 공간이었다. 그 자체로 마치 동떨어져있는 굴 같은 곳이어서 나는 종종 현실감을 잃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곳의 리듬으로 생활했다. 핸들링을 끝낸 수저와 접시, 컵 등을 채워 넣는 리듬, 계산과 뒷정리와 서빙 등을 분배하는 리듬, 점심과 저녁 리쉬 전의 긴장



gustave_dore

감 등. 곳곳에 붙어있는 네팔의 산과 동네의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수입된 향신료로 만든 음식들을 먹었다. 하루 종일 인도 영화 사이에 삽입되는 뮤직비디오들이 재생되었다. 그 안에서 배우들은 각종 로맨스와 판타지와 오리엔탈리즘과 동등을 눈이 부신 춤과 노래로 재현하고 있었다.

그곳이 배우는 환대와 별시사이에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시급 4500원과 서로 위안을 주고받으며 선물처럼 교환하게 되는 노동 사이에서 머리는 식었다 뜨거워졌다 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얼굴에 반가워 껴안는 포옹,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 안에서 친밀감과 성폭력적 스킨십 사이의 줄타기가 벌어졌다. 사장은 놀러온 알바생의 친구를 보며 사업자와 고용인의 경계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오면 또 다른 알바생들이 끝도 없이 일하고 있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곳은 말의 기능이 아주 협소한 대신에 상징들과 경계들로 가득 차 있는 마술의 숲이었고 정글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아이 수준의 대화와 농담따먹기와, 알바생들이 손님들에게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는 멘트들이 대화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의 피로나 수면부족, 배고픔, 고마움이나 미안함 같은 것으로 서로의 상대나 위치를 지각했다. 나는 그러한 방식 속에서 더 취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다. '명문대 페미니스트 집단'에서 형성된 이상적인 자아정체감이 계속해서 방해받았다. 정체성과 범주, 경계설정과 그에 기반한 권력관계라는 것이 계속해서 혼선을 자아냈다. 내가 가장 평소에 가까운 논리로 마주할 수 있는 다소나마 평범한 인물은 사장이었다. 나는 이 모든 혼선 속에서의 괴로움을 좀 더 마음껏 이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들어본 말들로 항의할 수 있었다. "지금 절 시급으로 협박하시는 건가요?" "다른 곳에선 주말알바 수습 시급도 이것보단 더 줍니다." 하지만 사장마저도 낯선 생애사를 가진 낯선 인물이었기에 나는 무력해졌다. 나는 그 공간과 사람들에 매료당하고 속고 싶었고 실제로도 그랬지만 내가 이미 가진 기준이나 이야기들로는 그것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난감했다.

나는 오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말이라는 걸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동굴 같은 그 공간의 공간감이라는 게 쉽사리 떠나질 않더라. 요일을, 날씨를, 가게들을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으며 한 공간에 붙박여 일하는 사람의 감각이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있었다.

5. 나 비 의 날

위드는 구전이란 공간과 유착된 기억이라고 했다. 공간-인간의 몸, 날씨, 하루의 어느 지점 등-에 뿌리를 박고 제 모습을 취한 말들. 이 말들은 특정한 고통이나 행복에 얽매어 있었던 반복과 인용의 상징체계를 타넘고 무너뜨리고 엮나간다. 나뭇잎의 웃음코드나 분노코드가 생긴다. 아 그때 누가, 로 시작되는 에피소드들이 생긴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그때마다 다른 뉘앙스를 가진다. 그래서 그 때 그 일은 겹겹이 쌓이고 또 쌓인다. 비옥해지고 점점 더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입체적인 것이 된다. 공간은 이야기를 배태하고 상영한다.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다.

사막에서 번데기들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비가 오면 일제히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현상을 나비의 날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나예겐 내 기억들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비의 날을 맞았을 하는 판타지가 있다. 그때 당신도 같이 있었을 좋겠다.

by 별



한편, 나비축제 일러스트레이션

빈곳 3. 길

길을 공간으로 인지한 것은 직접 걸어가 본 이후에야 가능했다.

이전에 길은 나에게 '몇 시간 거리'로만 존재했다. 버스가 지나가는 길 위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 한 적도, 그 길 위에 그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이 차에 치어 죽어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창 밖은 그저 2차원의 풍경일 뿐이었고, 지도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등의 지명이 적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고, 길은 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중간단계일 뿐이었다. 1차원의 길에는 냄새도 색깔도 소리도 없었다. 그곳에 바람이 불고 새가 있을 거라는 건 직접 걸어가 본 이후에야 알 수 있었다.

길을 여행하게 되었던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모퉁이를 돌면 시야가 변화듯이 그렇게 여행을 떠났다. 처음 마주친 길은 아름답지 않았다. 숲길 흙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삭막한 국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도 없는 차들이 스쳐지나갔다. 배가 터진 개구리 시체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놀랐지만 10분에 한 번씩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무렇지 않게 발걸음으로 피해 걸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스팔트에 그려진 하얀 금이고 고개를 돌면 차도와 멀리 산과 하늘이 보였다. 그것뿐이었다. 이를 사흘 나흘, 같이 걷는 친구와는 말 한 마디 없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어가다 친구는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고 나는 좀 더 걸어가기로 했다.

가끔은 산이 좀 더 가까워지고 눈이 펼쳐지고 마을이 나왔다. 가끔은 산을 끼고 돌기도 했다. 그럴 때는 개구리 대신 다람쥐나 뿔 시체들이 나왔다. 며칠에 한 번 도시가 나오면 땀 값에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김밥천국부터 찾았다.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며 집적대는 사람을 피해 도망가다 혼자 엉엉 울기도 했다. 그래도 어째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자주 흥얼거렸고 비가 온 다음 날은 차 소리에 묻혀지 않도록 크게 노래를 불렀다.

똑같은 눈을 매일같이 보았는데 언제부터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그냥 그런 길을 걸어가다 두령에 앉아서 해가 넘어가도록 마냥 쉬었다. 눈앞에 눈이 푸르렀고 백로 한 마리가 나처럼 쉬고 있었다. 주변에 잡자리가 날고 닭들이 돌아다녔다. 그 광경이 왜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까. 산에서 눈이 흘러나와 바다로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때 맨살이었던 것 같다. 맨살과 만나는 공기의 느낌이 기억난다. 선명하고, 차분한 느낌이었다.

길을 여행하는 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마주쳐 오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워 갔다. 고개를 넘었을 때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기에 기대하지도 않게 되었다. 예측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나를 떨어내는 법이었다. 길을 따라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마을은 꼭 해 지기 전에 나왔다. 도시에서 사람들은 걸어서 갈 수 없다고 말하거나 두 시간 거리를 이십 분쯤 걸린다고 말하곤 했지만 마을 노인들은 몇 시간 걸어야 도시가 나오는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두렵지 않았다. 어떻게든 밥을 먹게 되고 잠을 자게 되었다. 개구리 시체와 마주치듯 사람들의 친절과 마주치고 걸 어갔다. 여자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혼자 여행하느냐고, 겁탈하러 쫓아갈 테니 잘 도망가라는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던 아저씨도 그렇게 풍경처럼 지나쳤다.

향기 나는 꽃과 만나기도 하고 구더기가 끓는 개의 해골과 만나기도 했다. 점차 놀라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다. 문득 등장하는 무지개와 불을 스치는 바람 한 점은 같은 무게를 하고 있었다. 석양이 강아지풀에 비쳐서 멀리서 빛나는 순간들, 별이 쏟아지는 하늘, 풍으로 날아드는 사슴벌레 같은 것들을 만났지만 그것들이 특별했던 건 더 아름답거나 더 중요해서는 아니



이규경

었다. 뚝딱에도 같은 무게를 하고 있어서, 아니 아무 무게도 없어서였다. 길은 높아졌다 낮아지고 접혔다가 펼쳐지곤 했다. 산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바람이 산과 바다를 오간다는 게 단지 아름다운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물이 이상하게 높이 있으면 댐이 있는 것이었다. 댐이라는 게 정말로 무엇인지 댐만 보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게 놀라웠다. 터널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소리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터널이 양쪽 벽 외에 천장까지도 막혀 있다는 건, 정말 그게 산을 뚫고 있다는 건 걸어 보기 전까지는 사실 아는 것이 아니었다. 3차원의 공간인 길이 1차원의 시간좌표가 되면서 변한 게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걸어서 갈 거라면 결코 터널을 뚫지 않았을 거다. 빛을 보지 못하고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안다면 더 빨리 가는 것을 추구할 리가 없다.

어느 날은 배가 고파 묵묵 소리만 따라서 산을 넘었다. 끝이 안 날 것 같은 고개를 올라 능선을 돌아갈 때 갑작스레 나타난 절에서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밥상에 앉혀졌다. 기차역에서 길 묻고 얻은 토마토 주스를 내어놓자 비구니 스님은 손사래를 치고 냉장고에서 바나나를 꺼내 주었다. 토마토 주스가 많이 무거웠지만 바나나까지 받아 나왔다. 풍요로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때 느꼈다. 가방 하나 정도를 짊어질 수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어디로 갈 것만을 생각해 오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너무 간단하게 알아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느라 애써 명명해야 했다.

매일 여행지의 숙소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집의 문고리를 열 수 있다면, 매일 여행길에 오르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면, 나는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집에는 너무나 많은 게 있어서 배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터널을 지나 학교에 가고 있는 나에게 1차원이 된 것은 단지 길 뿐이 아니다. 주지않아 땀살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시간 속으로 흘러보낸 살이기에 집은 숙소가 아닌 은신처가 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길을 공간으로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순간순간 볼에 스치는 바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걸어가는 동안 나는 처음 마주치는 나무와 친근해졌고 백로의 날갯짓에서 위안 받을 수 있었다. 그건 토마토 주스 하나도 내가 짊어지기에 무겁다는 걸 알고 있어서였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기에 아무런 기대도 두려움도 없는 편안한 마음일 수 있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머물지 않고 흘러보내며, 해가 지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걸 느끼며, 짊어질 수 있을 때까지 짐을 덜어내고.

by 물이 흐르는 자리, 가온



“같이 걸을까”
생태여행!!

생태여행은 우리 삶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길 위에서 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화석연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지구의 생태적 연결고리 속에서 내 몸을 느끼는 경험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생태적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행을 통해 만난 지역, 사람들, 함께 여행한 사람들과 맞춰 나간 시간들, 나누는 대화들이 잠잠했던 생활 속에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상상력과 가능성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틈새를 내고 감과 땅과 인연을 맺는 여행, 언젠가 수확할 때 돌아와 가뭄거릴 수 있도록 함께 씨앗을 뿌리는 여행이면 어떨까요. 흙의 온기가 몸을 타고 흐르고, 계곡물의 차가움이 온몸에 부셔지는 걸 느끼고 싶어요. 쏟아지는 별들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햇살의 어루만짐 아래 낮잠 한숨자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요.

언제 가나요?!

이 학기가 끝나자 마자, 해방감과 함께 떠납니다. 6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3박 4일간 함께해요. 너무 더워지거나 북적이기 전에, 오디와 산딸기 익는 계절에 떠나요!

어디로 가나요?

지리산 인근에서 생태적인 삶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생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인 온배움터(구 녹색대학)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실천하는 사단법인 한생명을 방문하고, 지리산 물레길을 따라 걸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체를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진 경치 보며 함께 걷고, 맛있는 산나물 반찬에 밥 나누어 먹는 모든 시간이 생태여행의 면면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함께하고 싶어요!

qquestioning@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010-5296-0427(가온)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웹스채널과 함께 생태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복지위원회로 찾아오셔도 좋아요.



파업 전야

내가 발견한 연세대학생의 공통점은 치울 줄 모른다는 거다.

1학년 때 대동제 장터에서 김치전을 구웠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다. 잠이나 자야겠다 싶어 서 술집에 누웠다 깨니 새벽 4시였다. 기숙사에 가려고 백양로를 걷는데 학생은 아무도 없고 미화직 노동자만 분주했다. 학생만 가득하던 지난 밤 풍경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바닥에 깔았던 스티로폼, 부침가루 비닐, 후라이팬, 토사물 등이 산맥을 이루었다. 학생들은 축제에서조차 쓰레기 만들 줄만 아는가? 술 취했다고 설거지 안 하는 것도 한 두 번이다.

지난 학기엔 이슬샘에서 알바를 했다. "I ♥ YONSEI"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매시간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생협 직원은 학생 뒤치다꺼리까지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슬샘에 오는 학생들은 종이와 튀고 플라스틱이 뭉치 모르는 것 같았다. 심지어 라면국물을 일반쓰레기 함에 넣는 학생도 있었다. 커피를 쏟아놓고 "엄마"를 외치곤 멀리 떠났다. 나만해도 알바가 끝나고는 종이상자와 비닐포장을 한 번에 구겨 버리곤 했다. 어질러 놓으면 청소의 요청이라도 나타나는 줄 아는가?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는 추가노동을 해야 한다. 연세대학생들은 엄마가 치워준 방에서 잤거나 알바생이 닦아준 테이블에 앉아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았다. 돈 내면 다인줄 안다.

부분 파업이 시작되고 학교 곳곳에 휴지나 과자봉지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강의실에 가면 가끔 선생이나 학생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교실이 너무 더럽다"거나 "이것부터 어떻

게 하지"라면서 깔끔을 떤다. 반면 한 고려대 학생은 파업기간 동안 학교를 최대한 더럽게 써서 본부를 압박하자는 트윗을 올렸다.

지들이 어질러놓고 파업 탓하는 모습과 마음껏 어지름으로써 파업 지지하는 모습. 둘은 언뜻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 쓰레기를 통해 파업을 상기한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들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으로만 노동자를 상상한다. 많은 학생들은 깔끔히 정리된 공간을 위해서만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학교가 임금을 지불했으니 청소/경비노동을 성실하게 내놓으라는 논리와 청소/경비노동이 필요하니 학교는 임금을 지불하라는 논리. <더러운> → <노동자의 필요성> → <학교에 압박>이라는 도식은 사용자만 쓸 수 있는 틀이다. 어쨌거나 깨끗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한정된다. 사용자의 자격은 돈(학교는 임금, 학생은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이때 학생은 사용자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학교와 동일선상으로 편입된다.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여기는 소비가 권력이 되는 사회이다. 모든 사람은 소비자이자 노동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본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는 대체인력을 불렀다. 낯선 사람들이 하루치 청소나 경비를 하고 다음 날엔 우르르 사라졌을 것이다. 사용자 스타일의 지지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학교가 깔끔한 강의실과 화장실을 제공하면 사용자로서는 따질 말이 없다.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파업에 연대할 수 있을까?

1학년 때는 편의점 주말 알바를 했다. 그때 나는 컵라면도 아니며, 바코드 기계도 아니며, 최저임금도 아니었다. 그 모두를 합한 것보다 거대했고 그 모두에서 누락된 것보다 소소했다. 그때 나에게 노동은 해피24 광화문점에서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총체적으로 의미한 하나의 이야기였다. 눈이 침침한 할아버지에게 로또를 얻어준 시간. 다른 알바생의 어깨를 토닥인 뒷골목, 점장의 감시에 분노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항거하려는 시도들이 포함됐다. 노동은 생산물이나 생산과정으로 차환할 수 없다. 임금으로 대표할 수도 없다. 노동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이며 그를 통해 타자에게 남기게 된 자기 생의 흔적이다. 결국 노동은 한 명의 구체적인 인격과 특정한 시공간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한 수업에서 파업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학생은 이럴 때 학생회가 청소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물론 쓰레기를 치우는 건 학생회나 운영회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급을 대체하고, 회사를 대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노동을 어떻게 대체한단 말인가? 낯

선 사람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경비실에 앉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해고된 전임자를 대체할 수 있는가?

실제로 청소하거나 경비를 설 때 노동자들이 내어놓는 건 '청소, 경비 노동' 뿐이 아니다.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수업만 듣는 게 아닌 것과 비슷하다. 새벽 5시부터 오후 4, 5시까지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노동자들은 건물을 오가는 학생과 마주치게 되고, 매일 닫는 창문으로 나무나 새들을 보게 되기도 한다. 누구나 그렇듯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수다를 떨기도 한다. 지난겨울 집에 가려는데 배가 찢어질 듯 아파 학관 로비에 드러누워 버렸다. 경비노동자본이 몇 번이고 다가와 엠블런스를 줄려줄지 짐까지 갈 수는 있는지 물어보았다. 학교는 학생을 돌보라고 돈을 주지 않았지만 노동자는 건물 밖까지 부축해주었다. 노동은 한 사람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연루되어 만들어내는 삶의 모든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다.

사용자는 더싼 가격, 더 높은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언제까지나 노동자를 갈아치우려 한다. 강의실만 깔끔하고 내는 돈만 똑같으면 예전과 변한 게 없다고(오히려 반항하는 사람 없으니 더 좋아졌다고) 선전하려 한다. 그러나 시간은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다. 미화·경비노동자들이 연세대학교 공간에서 보낸 시간들, 거기서 발견한 지혜나 관록, 예기치 않게 생겨난 관계나 기억들은 누구도 아닌 이들 고유의 것이다. 지금 파업을 시작한 이들은 어제까지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누구보다 먼저 건물과 도로와 학생들이 알아채고 항거할 것이다.

친구는 종합관 유리벽에 "우리는 모두 노동하는 존재!"라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학교 당국은 약한 자들의 노동을 왜곡하고 있다. 학교는 돈, 공간, 관례, 고용관계를 무기로 심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이로 인해 미화·경비직 노동자, 학생, 매점직원, 시간강사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반경은 극도로 제한된다. 미화·경비직노동자의 한 시간을 시급 4350원으로 치환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공간과의 관계를 무시한다. 학생의 등교를 단지 학점이나 스펙 쌓기로만 소용되게 하고, 빈 공간을 없애서 동아리 활동이나 집회를 통제한다. 생협 직원은 적은 직원 수와 작은 매장규모 탓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있게 된다. 정식직원은 아니라도 나중에 경력이 된다고 회유하며 시간강사와 비상식적인 계약서를 체결한다. 연세대학교는 자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노동을 가리고 깎아내리고 막아버린다. "평

문 사학'과 '재단 적립금'에 기여할법한 부분만 추출해서 힘값에 매매하려든다. 학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추구할 수 있었던 다양한 가치,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찬란한 관계들이 절단된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을 향해 외쳐야할 구호는 삶의 모든 영역을 종횡한다. "생활 임금을 보장하라!"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학교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으로 끌고 들어 온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사람을 단순히 '청소, 경비 노동'이라는 부분만 쏙 잘라내서 데리고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노동자가 살아온 어제와 여기서 보내는 오늘과 앞으로 살아갈 내일까지를 함께 끌어들이는 본인의 책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우리가 학교에 요구해야 할 것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노동하면서 맺어온 일터와 노동자의 관계를 존중하는 일,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방지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일 등이며 이는 모두 긴급한 사안들이다. 노동자로 파업에 연대한다는 것은 나의 생활과 미화·경비노동자의 생활이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져있음을 인지한다는 것이고, 약한 자의 노동을 재단하는 학교와 시장에 맞서자는 것이며, 그동안 서로의 삶에서 누락되었던 소중한 가치로운 부분을 함께 되찾아오자는 노력일 것이다.

글 쓴 이유

이 글은 전면파업 전날 썼다. 그때 나는 대체인력을 들여온다는 소식에 굉장히 화가 났었다. 글을 고친 지금은 5월 말이다. 4월 7일에는 파업이 끝났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자보에는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휴가가 며칠 늘었는지 적혀있었다. 이후엔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하다. 학교에선 당연한 듯이 쓰레기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당연한 듯이 쓰레기를 버린다. 그렇다면 미화·경비직 노동자들은 어쩐지?

친구를 따라 미화노동자본을 만나러 간 적이 있다. 연희관에 미화노동자 휴게실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경비실 한 칸 칸이칸막이로 분류된 공간으로 들어갔다. 비좁은 장면에 세 명이 앉으려니 엉덩이끼리 바짝 달라붙었다. 루벳거리며 일어날 틈만 노리던 학생에게 당신은 공부 열심히 하라며 커피를 타주었다. 프림과 설탕을 아끼지 않은 달달한 커피였다. 2년 반이 흘러 나는 졸업을 하지만 아직도 연희관에는 조합원 휴게실이 없다. 종일 서서 일하면 다리와 허리 근육에 치명적인 손상이 온다. 충분한 휴식시간과 누울 수 있는 휴게공간은 필수다. 이 사실은 모두가 안다....., 얻어먹은 커피 값을 갚아야 할 텐데, 마음이 조금해진다.

by 피니

Coverstory 〈 퀘 스 처 닝 〉

문과대 교지 문우에 동아리에 대한 기고를 하면서 내가 (대)학내 동아리에 들지 않은 이유는 짜질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쓴 적이 있다. 사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파곤과 권태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학원에 쫓겨사는 2000년대 강남8학군 중고딩치고는 아지트를 꽤 만들었지만 당최 아지트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두 쓸데없는 일이었다.

비록 교실, 도서관, 시청각실 등 학교에 기생해 오후 5시에 선생님한테 쫓겨나거나 오후 11시에 경비에게 쫓겨나는 존재들이었지만 모일 곳은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하나둘씩 들어와 아무래도 생산적이지 않은 농담따먹기나 장르음악, 아이돌음악, 그 나이 그 시간대 사람들의 음악을 들었다. 연극부에 들어가 조명이 고장난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오던 순간을 기억한다. 시청각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떼고 죽은 척 했다. 누군가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같은 반 아이가 역사 선생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걸 어차이는 동안 우리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졸업식에서 몇 명이 눈을 제고 코를 높이고 왔다. 나는 치아교정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은 얼굴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대학교에 와서 선거 때마다 선분을 뒤었지만 학교는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근근히 이어나가던 알바에서 잘리거나 동아리에 등록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다. 뱃꽃이 피는 시간이 오면 사람들을 줄라 그림 천하지 않은 사이라도 꽃구경을 하러 갔다.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혼자 집 뒤편으로 가서 꽃잎을 맞았다. 또 다른 봄이 갔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다.

“어디 가?” “나 퀘스처닝 회의” “아... 퀘스처닝이 뭐야?”

그리고 침묵. 퀘스처닝은 무엇인가. ‘전총여 멀거지들’(문태 그로스, 2011 어느날 발언 중) 정도로 대변되는 이 공간과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디 써먹을 데가 없다. 왜 무슨 일을 하는지 구성원들 사이에 명확한 목표도 없다. 차라리 이해하기 쉽고 화내기 쉬운 기치- ‘개아초를 없애자!’ ‘학교총장 나쁜놈!’- 아래 조직하고 선동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애내가 뭐하는 애들인지 알기 편하고 하는 사람도 단순해지련만, 활동하는 사람들 같진 한데 무슨 활동인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당연한 일처럼 재물에 지쳐 흠어들지도 모른다.

선거가 끝나고 개치림 올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건 ‘연세대의 여성주의가 망하는 순간’(문태 그로스, 2010년 개표 다음날 발언 중)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나는 대체 여성주의가 뭘지 물어낼 수 없다. 내가 두려웠던 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이 웬당 그래야 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미래였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하긴 해야 할지 누구도 명확하게 이끌어나가는 사람 하나 없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베풀었다. 간신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조차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다.

무엇을, 왜 하냐고 묻는 질문은 당혹스럽다. 농담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 재밌는지 설명을 요구받은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부분이 재밌는지 말해내야 했다. 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가는 뒤영거 굴리간다. 적어도 지금은 질문들이 멈추지 않는다. 나는 오늘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by 헤어질 때 또 만니요 보보스

여성주의 세미나 후기
“솔직하고 싶네요”



새로운 자극을 느끼고 싶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느끼고 얻었던 좋은 기운들, 딱딱하게 웅크리고 있던 나를 쿡쿡 찌르는 말들, 그래서 세상 다르게 보이는 세상들. 관성대로 살고 있던 나. 세상은 저만치 돌아가고 나 혼자 여기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어쩌면 조금했던 것 같다. 더 나은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 가만히 있고 싶은 건지, 움직이고 싶은 건지 내 욕구를 알 수가 없었다. 그냥 그때 그 순간이 못마땅했다. 뭐라도 해야 했고, 누구라도 만나야 했다. 그래서 때마침 온 가온의 연락이 참 반가웠다. 새로운 사람들이라니 반가웠고, 공부라니 스스로에게도 명분이 됐다. 그 순간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기분이 온 것이라고 믿었다.

웨스처닝 친구들과의 첫 만남은 여러 의미로 충격적이었다. 일단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했고 그래서 놀라웠다. 난 새로운 사람들에게 심사리 나를 드러내거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편은 아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기 보단 주위의 분위기에 따라 나의 행동을 바꾼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선 처음부터 거리감이 없고, 어떤 곳에선 입을 다물고 눈치만 살피게 된다. 뭐 많은 이들이 그렇지만 난 특히나 가면을 쓰고 벗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어쩌면 가온이라는 친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웨스처닝 친구들을 봐도 그다지 긴장이 되지 않았다. 어디서 한번쯤은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친구들이 다가왔다. 그래서 사실 처음엔 실망(?)하기도 했다. 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첫 만남,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스스로가 각성되는 그런 느낌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게 어디서 연유한 어떤 방향의 자극인지는 상관이 없었다. 난 단지 자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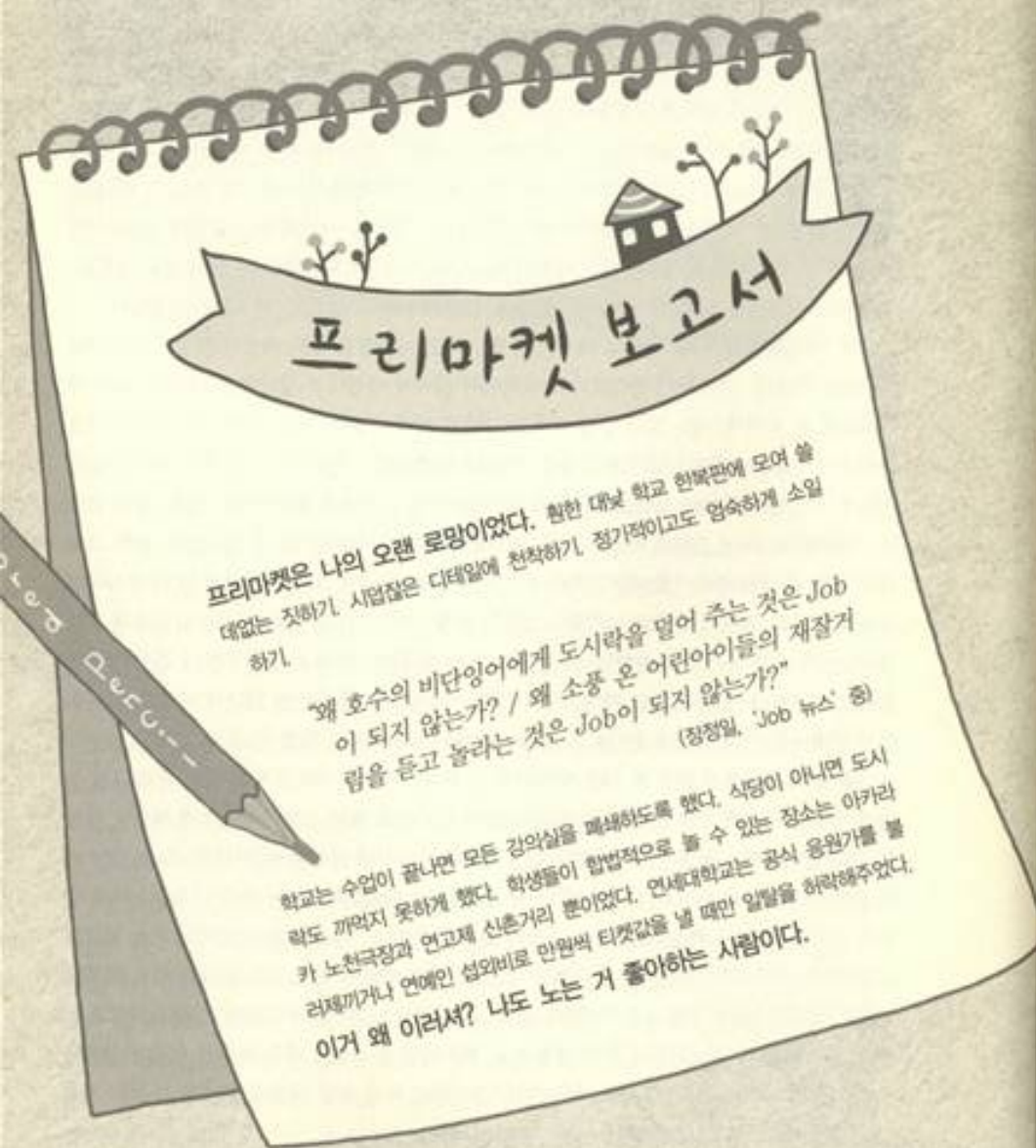
찾아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편안한 마음이 이상하게 못마땅했다.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느껴지는 쿡쿡 찌르는 느낌을 잃어버린 느낌이랄까. 그래서 조금은 아쉽기도 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함께 나누는 대화의 방식이 어색하지 않았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불편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결국은 나를 깨고 다른 그리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해줬지만, 나에겐 만날 때마다 뭔가 모르게 불편했던 것이 여성주의였다. 그래서 여성주의 활동을 하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항상 긴장이 되었던 것 같다. 이 대화에서 나의 감수성의 수준(?)이 가능하면 어찌나, 내 속에 내가 깨지 못한 것들을 저들이 파악하면 어찌나 노심초사했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어색한 말들을 마치 내 생각인 양 내뱉기도 했던 것 같다. 어쩌면 내 불편함은 거기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근데 웨스처닝 친구들과 세미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땐 웬지 최대한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게 여성주의든 뭐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각자의 경험에서 느끼는 바가 또 다를 텐데 그 다른 지점들을 이야기하는 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건데, 난 두려워했던 것 같다. 이번 세미나 때는 서로의 다른 지점들을 더 많이 듣고 싶었고, 나의 다른 지점들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었다. 그렇게 나누고 싶었고, 또 나눌 수 있었다.

내가 크기 위해서, 나를 찌르고 깨우는 말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 해했던 시절에 웨스처닝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생각했던 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웃기다. 나는 도대체 뭘 바라고 그렇게 해왔던 걸까. 나를 막 때리는 자극이 나를 경충하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역시나 조금하다. 나를 가만히 들여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만치 걸어가는 사람들만큼 나도 큰 사람이어야 한다고 조금해서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런데 웨스처닝 친구들과는 느리게 나갔다. 가만가만 나를 한 번 더 돌아봤다. 근데 그게 내가 한발 더 내딛을 수 있는 힘이 됐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 욕구들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알리고 노력했다.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알고 싶었다기 보단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욕구가 더 컸던 것 같다. 역시나 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원하는가보다.) 나를 후려치는 자극은 아니었지만 내 등을 두들겨주는 위안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두둑해지곤 했었나보다.

나는 원체가 허세가 많고 또 그걸 세련되게 잘 부리는 사람인지라 표현도 말도 글도 그럴 듯하게 하는데 익숙해져있다. 사실 그게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엔 내 세미나 경험을 정말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다. 떠오르는 기억들도 혹시나 왜곡한 게 아닐까, 또 포장한 게 아닐까 물어보고, 표현 하나하나 이게 진짜 솔직한 내 마음인가 되돌아봤다. 그래서 내가 평소 애 잘하고 또 많이 하는 그럴 듯한 포장이 없는 글을 썼다. 사실 뭔가 아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나를 정말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솔직한 것 보단 잘 포장하는 데 주력했었는데 그걸 못하니 살짝 겁까지 나기도, 솔직해지고 싶었고, 솔직해야 할 것 같았다. 그게 이번 겨울 웨스처닝 친구들과 나를 나누고 서로를 들여다 보며 느꼈던 내 마음이다. 그리고 배운 점이기도 하고, 유독 처음 겨울에 만났던 친구들, 계절이 가기 전에 또 보고 싶다. (와우 매우 축스럽다:-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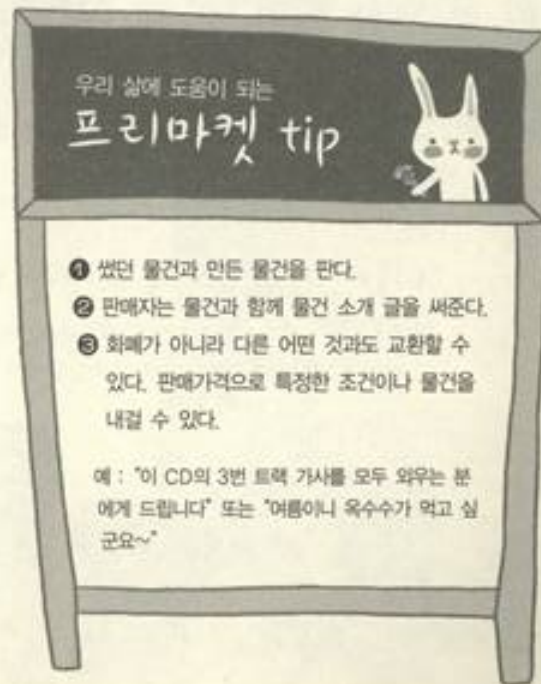
by 수화



우선 공간이 필요했다.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을 드높이지 않는 모든 행위를 소환해들이기 위한 공간. 프리마켓의 사업목표 중 하나는 중앙도서관 앞을 광장으로 되돌리는 일이었다. 별다른 권력이 공인해주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빈 터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축제, 장례식, 집회, 야외수업 등. 어린 아이들은 허허벌판에서 상상의 해적선을 타고 3시간도 넘게 바다를 유랑해낸다.

이외에 몇 가지가 더 있었다. 예를 들어 교환·선물경제를 실험하기,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들 하지만 월말이면 용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화폐라는 고정된 수단이 아니라 각자가 확보할 수 있는 다변화된 방안으로 값을 치러보고 싶었다. 혹은 낡은 물건에서 기쁨을 찾기. 새 물건이 좋아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때깔나는 광고나 비싼 가격 때문이다. 물건의 아우라를 내가 아는 친구의 흔적에서 찾아보고 싶었다. 하도 만지작대서 바래진 지갑 모서리를 볼 때, 노란 색연필이 그어진 흰 책을 뒤적일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다. 돈을 적게 쓰고 사는 길, 물건을 오래 쓰고 사는 길, 매뉴얼과 다른 의외의 포인트에서 기쁨을 찾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창대한 시작은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여섯 번의 프리마켓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글은 그 여섯 번의 프리마켓에 대한 보고서다.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월 8일 (화)

프리마켓 일지



가 개장

여성의 날을 기념해 가 개장. 물건은 몇 개 없었다. 첫 거래는 뽀빠스가 내놓은 신에 관한 책이었다. 500원에다가 다음 프리마켓에 물건을 내놓으라는 조건을 붙여 교환이 성사되었다. 기념으로 마수걸이를 하고 사진도 찍었다.



미화·경비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빨간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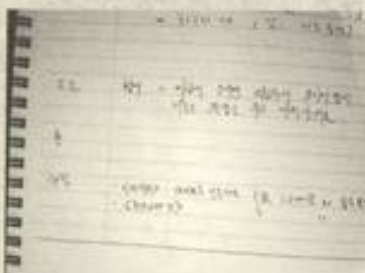
연세대 미화·경비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아이টে็ม으로 빨간 리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3월 15일 (화)

본격 시작!!

마수걸이 당사자는 과인 약속을 잊지 않았다. <아가미>와 <우리나라> CD를 프리마켓에 내놓았다. 프리마켓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은 거래 조건을 함께 수첩에 적어준다. CD의 교환조건은 1000원 or 좋은 물건이었다.



너프씨의 핸드드립 교실

너프

내가 내려준 커피를 맛있게
먹으시면 모습이
제일 좋은 기억이었어요. 껏

평상시에 핸드드립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는데
친절한 너프씨 덕에 많이 배웠어요!
집에서 커피 내릴 때마다
조언들이 모락모락 생각나요~

재인



파업 지지를 위해 점거농성 중인 본관 앞에 펼쳤다

많은 물건이 팔렸다. 엄씨는 "정치하 송돈 감사합니다"라고 적었고 파니는 "유정이 중학교 시절 사진. 액자화 할거다"라고 적었다. 이날 가온은 교재, 옷, 파클을 팔아 2만원 정도를 벌었고 그걸로 다음 일주일을 살았다고 했다. 한 달 후 대동제 연대주점에 갔더니 누군가 가온이 팔았던 노란 가방을 데고 막걸리를 서빙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손님이 가방을 보고는 이쁘다며 칭찬을 하고 있었다.

4월 5일 (화)



4월 12일 (화)

물건이 많았다

구두 세 켤레가 들어왔고, 책이 두 무더기, CD도 꽤 많아졌다. 별은 프리마켓에 앉아 있다가 물건을 많이 골랐다. 가온이 문경에서 가져온 지갑에다 이칼이 내놓은 구두 세 켤레 중 한 켤레(검정색 부츠)를 가져갔다. 별이 신은 부츠는 꼭 러시아의 겨울을 연상시켰다. 이칼이 신었을 때의 부츠는 어땠을지 궁금했다.



막달레나 공동체의 천연비누 2실

가온

아침마다 로즈마리 향과 함께
세수하고 있어요♥

매운맛 비누 - 썰고 찢고
녹는 사이에 정이 갔들었나보다.
취고 문지를 때면 괜히 흐뭇하다.

윤수진

파니

비누를 만들어 외솔관 여휴 냉장고에다
굳혔습니다. 그리곤 함께 본관 앞에
앉아서 커피마시고 담배도 태웠는데
참 좋았습니다. (막달레나 공동체는 성매매 여성의
삶의 권리에 주목하며, 사회적 낙인에 대항하며,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40억 인류의 Job이 될 수는 없을까?



올 봄 날씨가 아주 신사다웠단 사실을 알고계신지? 하늘은 매주 화요일마다 혹독한 바람을 보내주었다. 덕분에 나는 주기적으로 춥고 서러워졌다. 심지어 주워온 조형물로 만든 "프리마켓" 간판은 너무 허슬했던 탓인지 3초도 온전히 서있질 못했다. 언제나 한명은 인간받침대가 되어 아무 것도 못하고 간판만 붙들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리는 마법은 정말로 신기했다. 내가 앉아있던 건 화요일 12시~4시(추우면 3시) 중도 앞이라는 하나의 시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여러 개의 시공간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에게로 왔다. 나는 3월 8일 프리마켓에 2년 전 학교에서 찍은 나무와 풀 사진을 내놓았다. 그걸 가져간 값으로 유경은 4월 5일 프리마켓에 중학교 시절 로모카 메라로 찍은 동네와 하늘 사진을 가져왔다. 지금 그 사진들은 나의 자취방 벽에 걸려있다. 사진을 매개로 나의 2009년과, 유경의 2002년과, 나와 유경이 만나게 된 2011년이 모자이크처럼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증명사진이나 커플링 같은 물건을 필요로 한다. 물건을 교환하는 일은 그에 덧붙여진 그이의 애착, 버릇, 시간을 함께 내 삶에 들어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지난 봄에 경험한 12시부터 4시의 시간과 중도 앞이라는 공간을 전하고 싶다.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과 갑자기 쏟아지던 웃음과 풍풍 언 발가락까지 포함해서 당시의 절절하던 현실감을 전하고 싶다. 그건 실험이나 장난만은 아니고 나의 Job이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40억 인류의 Job이 될 수는 없을까?"(장정일, 같은 시) 시공간을 만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라 믿는다. 이 보고서가 선물하는 6번의 화요일이 당신이 사는 일상, 그 한 복판에까지 무사히 찾아들 수 있기를 바란다.

by 모두들 고마웠습니다 파니



도시락 모임

처음 학교에 들어와 밥을 먹을 공간이 없었다. 반방이나 동아리방에서 시켜먹기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서먹했다. 학관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약속을 잡아야 했다. 결국에는 사람이었다.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소유한 사람들과 뜻을 어느정도 같이 공유하거나

자신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했다. 밥을 먹기 힘들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과 같았다. 학관 밥이나 배달음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건 이 학교에 반기를 드는 일이었다. 학교는 나랑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 신기하게 한학기를 보내고, 어떻게 만났는지 신기하게 사람들을 만났다. 지금의 나는 학관 토스트(없어졌다! 애석한 일이다), 라면, 그라탕, 김치찌개, 술에 취하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각종각색의 안주, 집에 남아있는 반찬으로 싸운 도시락, 학교 밖에 나가면 널려있는 돼지고기구이 등을 먹는다.

학교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익숙해져도 불편함은 그대로 있다. 흔히 환경을 생각하는 식사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묻고 답으로 유기농이나 로컬푸드를 말한다. 누구와 어디서 먹을 것인가도 질문해야 한다. 이 학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길래 같이 앉아서 밥먹을 공간이 없을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 웅거종기 앉아 밥을 먹자. 날씨가 좋으면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아놓고 먹자.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랑 먹자. 친한 사람들끼리 먹자. 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먹어보자. 무엇을 먹을지는 그 다음에 고민해봐도 좋을 듯하다.

본격 홍보글: 도시락모임이 있습니다!!

<http://www.club.cyworld.com/questioning>

도시락모임에 들어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장소(푸른생 등)를 빌리거나 아님 잔디밭에 자리 깔아놓고 푸성귀랑 밥이랑 각자 가져온 반찬 하나씩 올려놓고 먹어봐요. 한가 사 와도 되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요. 음식 맛있게 먹고 위염 걸리려고 학교 온 거라면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이랑 한국이 풍광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인 거면 나가 원하는 건 뭐든 탄다면서요. 문의: 010-9536-4335



‘나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결국 나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들이 서로 엮이고 얹히던 시간, 말하고 싶었지만 미처 알 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시간, 그리고 매체를 만들면서 부대끼고 뼈격대고 늘어져도 함께 해온 시간들이 모여서, 혼자서라면 절대로 만들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시간과 이야기들이 이 매체에 담겨서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 <스츠>

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다. 휘몰아쳐 휩쓸고 싶은 마음과 땅 속 뿌리부터 적시고 싶은 마음. 참 많은 말들이 흘렀고 더 많은 말들이 잠겼다. 하지만 정기는 말물에도 힘이 있다는 걸 이제 조금 알겠다. <가온>

나는 점점 더 바빠진다. 점점 더 겁없이 글을 뿌려댄다. 점점 말없이 웃음만 자를 때가 많아진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 팽팡팡 <보후스>

글을 쓰고 시간이 지나면 이 글을 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 이곳에 실린 글도 마찬가지다. 글에 얹힌 몇 가지 책임 외에, 이 글에서 나의 지분은 없다. <워드>

() <별>

현진아 사랑해♡ ※※ 하늘만큼 땅만큼 리뷰라뷰 <파니>